

法輪大法

各地講法 一

각지설법 1

李洪志

차 례

싱가포르불학회설립식설법	1
미국제1차설법	51
베이징(北京)국제교류회설법	107

싱가포르불학회설립식설법

李洪志

1996년 7월 28일

싱가포르불학회설립식설법

李洪志

(1996년 7월 28일)

자, 내가 여기에 서도록 하자.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싱가포르의 여러 분야에서 법륜불학회(法輪佛學會)를 지지해 준 각계 인사들에게 감사드리며, 나는 또한 여러분을 대신하여 우리를 지지해 주고 법륜불학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해준 싱가포르의 각 분야 인사들에게 감사드리는 바이다. 여러분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자. (박수) 불학회의 설립은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얻게 할 것이고, 인연 있는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법을 배울 수 있게 할 것이며, 앞으로 여러분이 연공을 함에 국가의 법률적인 보호 아래서 대중을 위한 이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 줄 것이다.

말할 것을 그리 많이 준비하지 않았다. 나는 이번 대회 기회를 빌려 생각나는 데까지 말하고자 한다. 나는 우선法輪功(파룬궁)을 소개하겠다. 그의 역사는 굉장히 길다. 수련계의 사람은 모두 알고 있는바, 인류사회에는 단지 한 차례 문명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문명이 나타났다.

아득한 역사의 대하 속에서 인류의 도덕이 점차 쇠락으로 나아갈 때, 인류 또한 몰락으로 나아가게 된다. 흔히 모두 이리하다. 따라서 최후로 나아가면 물질의 변이와 정신의 퇴폐가 절정에 도달하며, 인류의 도덕관념이 크게 미끄럼질 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인류는 몰락을 향해 나아가는데, 인류에게는 여러 차례 이런 정황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인류 문명은 단지 한 차례가 아니며 여러 차례 문명이 나타났다. 사람이 말하는 이 석기(石器)시대도 단지 한 차례가 아니다. 인류에게 석기시대가 여러 차례 출현했다. 왜냐하면 인류에게 이런 문제가 나타날 때 인류의 일체 노동도와 모든 지식도 다 휩쓸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4, 5천년 이전 이번 인류문명 초기에 우리 지구상에는 한 차례 대홍수가 출현하여 유럽 전반의 백인문명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물론 남겨진 유적은 아주 적지만 일부 문물고적 중에서 일부 사전(史前)의 것들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옛 희랍문화가 남겨놓은 일부 출토문물 중에서 우리는 여전히 사전문명의 존재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동방에는 대홍수 이후에 남겨진 것들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많았다. 여러분은 우 임금(大禹)이 물을 다스린 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 당시 물이 대단히 불어났으며 물이 물러간 다음 우 임금은 사람들을 데리고 물에 잠긴

토지의 물을 빼냈다는 이러한 역사상의 기록이 있다. 당시 인류의 그 옛 문명, 전번 한 시기의 문명은 대홍수로 휩쓸 되었다. 그러나 중국인의 조상은 대홍수 이후에 많은 사람이 살아남았으며 남겨 놓은 문명도 비교적 많았다. 그러나 서방인은 살아남은 사람이 비교적 적었다. 그러므로 지금의 서방문화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이며 그 어떤 옛 역사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이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옛 문명은 아주 연원(淵源)이 있는 역사가 되었으며 따라서 지금의 과학이 걷는 길과도 같지 않았다.

그럼 이러한 옛 문명 속에는 지금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고, 한편으로 현대문화와는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방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중국 이곳에는 많은 신비한 것과 현대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인 자신도 알고 있다. 중국 이곳의 많은 옛 문화를 아직도 현대인은 인식하지 못한다. 일부 사람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지만 역시 해석하지 못하며 또한 이런 옛것들을 내놓아 사람들에게 말해 주는 사람이 없다. 당시 살아남은 중국인의 조상이 비교적 많았기 때문에 일부분 상고(上古) 문화가 남게 되었다.

과거 상고(上古)시기 중국 종족의 중심지역은 현재의 황하유역이 아니라 신장(新疆) 이 일대였다. 이 민족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 역시 이 일대에서였다. 왜냐하면 쿤룬산(崑崙山)이 이 일대 가까이에 있어 주위의 지표면이 비교적 높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그 한 차례 홍수는 수위(水高)가 2천 미터에 달했으며 지구 전반이 수몰되게 했다. 많은 사람이 홍수가 넘쳐날 때 쿤룬산으로 대피하여 살아남았고 상고시기의 일부 문화를 남겼다. 예를 들면 중국의 일부 사람들이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하도(河圖)·낙서(洛書)·태극(太極)·선천팔괘(先天八卦) 등등과 또 오늘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부 옛 기공(氣功)들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 기공 그것은 우리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전(史前)문화로서 중국 이 지역에 비교적 많았다. 과거에는 그것을 기공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수련이라고 했다. 물론 수련이란 층차의 구별이 있다. 속인 이 사회 층면 속에서는 단지 사람이 어떻게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며, 어떻게 사람의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가를 알려줄 뿐이다. 그러므로 일부 기공사들은 바로 이것으로 사람들을 위해 일부 좋은 일을 한다. 다시 말해서 기공사들이, 각 나라로 간 기공사들을 포함해, 사회에서 전하고 있는 것은 단지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그 한 층의 것일 뿐이다. 여기에서 남들의 기공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들이 높은 것을 전하지 않았고 단지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것을 전했을 뿐이며 동시에 일부 공능의 시연을 수반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왜냐하면 병을 제거할 때, 일부 병은 일부 공능을 통해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부 특이공능(特異功能)을 펼쳐 내는 것이 있었다.

이 ‘특이공능’이란 다만 현대화한 용어에 불과하며, 실제적으로는 생명의 본능이다. 현재 물질적인 것이 증대되고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 사람들 또한 갈수록 현실적인 것을 인식하고 있고, 사람의 선천적인 본능, 가장 오랜 것은 갈수록 저버리고 있다. 만약 이렇게 내려간다면, 장래 기술적으로는 더욱 개발되겠지만 사람은 더욱 퇴화(退化)될 것이다. 지금은 기차·자동차·비행기가 있으므로, 여러분은 그리 많은 길을 걸을 필요가 없다. 장래는 갈수록 물질적인 데로 추진해 감에 따라 사람들은 아주 심하게 퇴화될 것이다. 이른바 진화론에 따라 추리한다면, 장래 표면 인체는 모두 퇴화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사지(四肢)가 변이(變異)되고, 퇴화하여 대뇌(大腦) 껍질만 남을 것이다. 물론 나의 이것은 비유한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사람 본능의 것들, 선천적인 것들은 갈수록 더욱 많이 버려지게 된다.

중국 이곳에서, 그것의 옛 사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발

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것이다. 중국의 옛 사회에 따라 발전한다면 기술의 진보가 있을 수 있는가? 물론 당신이 현존 과학기술 이론으로 다른 과학을 인식하려면 영원히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현재의 과학 틀에서 벗어나서 다른 과학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그것은 마땅히 이러한 사회상태가 나타나야 한다고 느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만약 옛 동방인의 사회 상태에 따라 발전한다면, 그럼 기차·비행기가 있을 수 있겠는가? 나는 어제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오는데 3시간 남짓 걸려 도착했다. 굉장히 빠르다. 인류의 발전은 아주 진보적이다. 만일 중국 옛 사회 상태의 길을 따라 간다면, 이럴 수 있겠는가?”

사실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같지 않은 과학방법은 같지 않은 과학발전의 길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옛 중국 사회상태 그 길을 따라 발전한다면, 여러분 알다시피, 기공 연마(煉)로 인체의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공수련은 무형의 것을 유형의 것으로 할 수 있고, 최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할 수 있는데, 어떤 계측기나 어떤 현재의 과학기술 수단도 통하지 않고 본다. 기공을 연마할 때, 가부좌를 틀고 입정(入靜)에 들면, 처음에는 별 감각이 없다. 잠시 후 당신이 완전히 조용해지면, 사

람 신체는 비록 외형적으로는 움직임이 없지만, 신체 내면은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하는데, 내재적인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움직임은 분명치 않던 데서 매우 분명한 데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최후에는 당신의 의식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해진다. 이것이 무형에서부터 유형에 이르는 것이다. 최후에 이런 의식과 감각은 서서히 연공인(煉功人)이 끊임없이 승화되어 감에 따라 유형적인 것을 형성할 수 있다. 우주 속에는 아직도 과학기술이 인식하지 못하는 많고도 많은 에너지물질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에너지가 끊임없이 연공자(煉功者)를 강화해 주면, 이런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물질이 점차 유형적인 것으로 변화한다. 그러면 사람이 볼 수 있고, 심지어 운용할 수도 있다. 이런 발전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사람의 자질이 승화될 것이다. 과거의 학생을 유생(儒生)이라고 불렀는데, 수업 전에 모두 가부좌하여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조용히 한 후에야 책을 보았다. 과거에는 이랬는데, 옛날 중국의 각 분야에서는 거의 다 호흡을 조절하고 마음을 조용히 함을 중시했다. 이런 상태에서 평소에 하지 못하는 많고도 많은 일들을 해내게 되었는데, 이는 바로 기공 수련과 아주 근접한 것이다. 옛 중국인의 사상관념 속에는 줄곧 이런 문화가 관통하고 있었다.

방금 나는, “어떤 사람은 이처럼 발전한다면 비행기가 있을 수 있으며 기차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같지 않은 과학발전 방향은 같지 않은 과학 상태를 가져온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라. 만약 사람이 날 수 있고 뜰 수 있다면, 그렇다면 비행기, 기차가 필요하겠는가? 이러한 사람들이 중국에, 인도에 있고, 미국에도 있으며, 法輪功(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다. 왜 이럴 수 있는가? 전신의 맥이 완전히 통해, 한 곳도 막힘이 없으면, 이 사람은 뜰 수 있다. 물론 현재 과학은 그것이 왜 그런지를 모른다. 사실 믿지 않는 이른바 과학자들의 비웃음을 사 명성이 실추될까 봐 감히 연구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한 미국인이 싱가포르에 와서 공연을 했는데, 아마 많은 사람이 그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 진실하게 존재하는 현상으로서 사람은 뜰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라. 과거 중국인은 오고 감에 종적이 없다는 말을 했다. 많은 기공사가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가는데 천리나 떨어져 있어도 불과 몇 초면 도착했다. 그는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물론 많은 미지(未知)의 것을 상세하게 분석해서 말해야 하겠지만, 오늘은 자세하게 말하지 않겠다. 나는 단지 개괄적으로 부동(不同)한 과학발전은 부동한 상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당신은 비행기로 세 시간이면 홍콩에서 싱가포르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앉으면 바로 뜨는데, 아마 심여 분이면 날아올 것이며, 그는 이런 육중한 기계를 만들 필요도 없다. 말하자면, 이런 일은 무슨 아라비안나이트가 아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점차 과학으로 실증되었다. 바로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당신이 현존 과학에 입각해서는 다른 과학의 길을 인식할 수 없다.

물론 기공을 현대의 용어로 말하자면 그것 역시 과학일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래되고 가장 고급적인 과학이다. 많은 과학자들이 과감히 나와 인체과학과 옛 과학을 실증했는데, 그들은 모두 이런 기공 현상의 진실한 존재를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기공의 존재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이 자리에 앉은法輪功(파룬궁) 수련생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法輪功(파룬궁)을 배우라고 알려줄 때,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것 또한 아주 정상적이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인류사회에는 바로 이처럼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다 기공을 믿고, 불법(佛法)을 믿으며, 수련할 수 있다면, 그럼 인류사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모두 천인(天人)이고 모두 신(神)이다. 반대하는 것이 있고 지지하는 것이 있으며, 믿는 것이 있고 믿지 않는 것이 있음으로써 이런 모순되고 상생상극(相生相剋)인 사회를 구성했다. 속인사회의 일체 일을 포함해서 어떤 분야에든 이런 정반(正反) 두 방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요소가 있다. 당신이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좋지 않은 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이 어려움을 돌파해야만 비로소 그 좋은 일을 해낼 수 있다. 물론 사람이 나쁜 일을 하고자 해도 쉽지 않은 것으로, 국가 법률도 있고, 또한 좋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바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며 이는 모두 정상이다. 이 우주 중에는 두 가지 부동(不同)한 성질의 대립물질이 존재하고 있으며, 발전해 내려와서는 태극의 이론인 일음일양(一陰一陽)이 생겼다. 더 아래로 펼쳐지면 곧 상생상극의 이치가 나타난다. 이 상생상극의 이치는 속인사회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방금 옛 과학을 말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을 것이다. 오늘날 내가 전한 이 불법(佛法) 수련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은 지지할 것이고, 또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것 역시 모두 정상이다. 앞으로 여러분도 모두 이런 일에 부딪힐 수 있는데 내 생각에 그리 놀랄 것이 없다.

나는 방금 法輪功(파룬궁)의 역사를 말함에 앞서 이에 파생된 일보의 것을 이처럼 많이 말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인식하는 기공, 그것 역시 일종 옛 과학이다. 法輪功(파룬궁)을 포함해서 역시 사전문화(史前文化)이다. 리홍쯔(李洪志)가 오늘 일시적인 충동으로 한 세트의 것을 엮어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사람을 해치는 것이다. 지금 많은 가짜 기공사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남을 해치고 자신도 해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산해 나오는 공은 이 공간으로 가지 않아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므로 많은 가짜 기공사들이 사람을 속인다. 가짜를 진짜에 섞고 가짜를 진짜인 척한다. 본래부터 기공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더욱 기공을 반대한다. 특히 현대인의 도덕이 밑바닥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모두 진짜와 가짜가 있다. 상품도 가짜가 있는데 하물며 기공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당연히 이 기공은 함부로 한 세트의 것을 만들어 사람을 속이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남을 해칠 수 있으며 또한 자신도 해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을 속이는 자도 그 속에서 어떤 것을 연마(練)해 낼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아무것도 연마해 내지 못하면 상관없지만, 정말로 어떤 것을 연마해 낸다면 사람을 아주 위험한 지경에 빠뜨릴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가짜 기

공이 사람에게 가져다 준 위험이다.

그럼 法輪功(파룬궁)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언제 생겼는가?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가 실로 대단히 길다. 속인이 들으면 아주 허황하다고 느낄 것이다. 이러한 것을 나는 지금 말하지 않겠다. 당신들은 천천히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인류의 사전(史前)시기에 法輪功(파룬궁)은 주요한 불법(佛法)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을 제도한 적이 있다. 마치 2천5백 년 전에 석가모니가 사람을 제도할 때와 같이 세상에서 중생을 널리 제도한 적이 있다. 아주 긴 역사시기 동안 사람들에게 펼쳐 보여주지 않았다. 역사는 매우 아득하고 길다. 특히 오늘날의 세인들은 더욱 모르고 있다. 法輪功(파룬궁)의 역사는 아주 길고 아주 멀고 오래됐다.

왜 오늘날 그것을 전할 수 있는가? 물론 나는 단지 가장 간단명료하고 알기 쉬우며 가장 표면적인 상황부터 말하겠다. 나는 한 가지 상황을 보았다. 무슨 상황인가? 인류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과학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인류의 도덕은 오히려 크게 미끄러질치고 있다. 지금 사람들은 다 과학을 믿기 때문에 현대 과학이 진리라고 여긴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 가지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는데, 지금의 과학은 완전하지 못하고 아직 과학이 인식하지 못하

는 많고도 많은 것들이 있으며, 아울러 아직 많은 것이 과학에 의해 배척당하고 있다. 또한 이 완전하지 못한 과학을 이용해,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오히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공격하는 고집스러운 사람들도 많다.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불분명한 현상, 그것은 아주 뚜렷하게 인류사회 이 현실 공간에 반영되고 있다. 현재 과학은 그것을 과감히 인정하지 못한다. 과학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을 믿는 많은 사람들 역시 같은 관념을 품고 반대한다. 그러나 이 과학은 확실히 완벽하지 못하다. 예컨대 몇천 년 이래 사람들은 모두 德(덕)을 말했다. 현재 많은 사람이 모두 이 德(덕)은 바로 사람 사상 속의, 두뇌 속의 일종 선량한 의식이며 사람에 대한 정신적인 요구라고 여기면서, 더 생각해 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 주겠다. 우주 중의 어떤 것이든 모두 물질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의 요소가 존재한다. 이 德(덕)은 진정한 물질 존재이며 확실한 물질 존재의 표현이다. 과거의 동양인, 특히 중국에서는 노인들이 “德(덕)을 쌓아라, 德(덕)을 쌓아라.”라고 했다. 젊은이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왜 德(덕)을 쌓아야 하는가? 무슨 德(덕)을 쌓는가? 이 보이지 않는 德(덕)을 어떻게 쌓는가?”라고 한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유형적인 것이다. 다만 그것이 다른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거기에 있다. 당신이 좋은 일을 하면 당신은 德(덕)을 쌓는 것이고, 당신이 고생을 겪어도 역시 德(덕)을 쌓는 것이다. 그것은 생생세세 언제나 사람을 따라다니는데 그것이 당신 장래의 분복을 결정한다. 어떤 사람은 이로 인해 아주 큰 벼슬을 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이로써 대단히 큰 재산이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이로써 대단히 큰 사업을 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이전 혹은 전생에 德(덕)을 쌓아 금생에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럼 왜 많은 사람, 그들은 생활상에 다른 사람처럼 그리 부유하지 못한가? 바로 그의 德(덕)이 다른 사람보다 적어 그렇게 많이 쌓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원인이다. 그러므로 이 德(덕)은 지극히 관건적인 것이다. 방금 나는 과학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했다. 과학은 현재 인류 현존의 이 물질 공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른 공간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 또한 많은 특수하고 아주 대단한 과학자들이 이미 다른 시공(時空)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비록 돌파하지는 못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미 소박하게나마 명백히 밝혔으며,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들은 다른 시공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그 시공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의 생명은 어떠한 것이며 존재형식은 어떠

한가? 그 속의 시간과 우리 이 공간의 시간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의 공간적 개념, 생명의 형상, 물질의 형식은 어떠한 것인가? 이는 현재 인류의 과학으로 말하면 모두 알지 못하는 것이다. 현대 과학은 다른 공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현대 과학은 德(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인류는 과학을 너무나 믿으며 그것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도 믿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그것이 인류 도덕을 크게 미끄럼질 치게 하는 요소를 조성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인류에게 德(더)를 제기하여, 당신이 德(더)를 쌓아라, 德(더)를 중시하라고 한다면, 현대의식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당신은 미신을 말한다. 그건 다 미신이다. 우리는 과학을 믿지, 이러한 미신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이 좀 보라. 이 과학이란 몽둥이로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타격하고 있는데, 그럼 당신은 그 과학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방금 말했지만, 인류의 물질생활이 아주 풍요로워졌는데 무엇 때문에 도덕관념이 미끄럼질치고 있는가? 현재 과학은 다른 공간과 고급생명의 존재를 실증하지 못하며, 인류에게 윤회와 응보가 있다는 것을 실증하지 못하며, 德(더)의 존재를 실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히 나쁜 짓을 한다. 현대인, 많은 사람들이 “이는 모두 미신이다. 과학적이 아니다.”

라고 여기면서 신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감히 나쁜 짓을 한다. 응보를 믿지 않으며 이는 모두 미신이라고 여긴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이 과학의 부족함이 가져온 가장 큰 문제이다.

나는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 방금 法輪功(파룬궁)의 내 원을 말하면서, 이에 파생된 이런 문제를 좀 말했다.

수련계에서 담론하는 많고 많은 것들을 속인사회에서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속인사회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듣고 보아 일부를 알고 있으며, 우연히 일부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보거나 느낄 수 있고, 또 일부 특이공능을 접촉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실증하고 계통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없다.

방금 한 수련생이 단상에 올라와서 이 법(法)은 극히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여기서 또 여러분에게 이처럼 많이 말했는데, 책을 보지 못한 사람은 가서 『전법륜(轉法輪)』 이 책을 보면 곧 알 수 있다. 『전법륜(轉法輪)』은 법리이다. 법은 물론 수련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수련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아주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실 수련 자체는 어렵지 않다. 속인 마음을 내려놓고 사람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렵다. 무엇이 속인 마음인가? 예를 들어 수련인으로서 우선 때려도 맞받

아치지 않고 욕을 해도 대꾸하지 않아야 한다. 속인은 해내지 못하는데, 그들은 속인이기 때문이다.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이 당신을 괴롭힐 때, 당신은 원망도 증오도 없이 태연하게 대해야 한다. 나아가 웃음으로 은혜와 원한을 마무리 지어야 하고, 심지어 얻어맞았다 해도 마음속으로 당신을 때린 사람에게 감사드려야 한다. 속인은, ‘이것은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것이다. 어찌 이런 사람이 되겠는가? 너무나 나약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괴롭힐 때, 그는 당신에게 德(더)를 주는데, 당신에게 德(더)를 주고 있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 이 우주 중에는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방대한 물질이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 과학은 발견하지 못한다. 이 수없이 많은 더욱 미세적인 방대한 물질 그것들은 모두 영성(靈性)이 있으며 생명이 있다. 그것들은 자신보다 낮은 일체 생명을 통제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체(整體)적으로 이 우주의 일체를 균형 잡고 있다. 또한 이 우주에는 한 가지 이치가 있는데, 잃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하고 얻으면 곧 잃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사람이 무엇을 얻고자 하면 교환해야 하는데 그것을 득실(得失)이라고 한다. 어떻게 잃는가? 이 공간에서 속인은 볼 수 없으나 때로는 느낄 수 있다. 일반인은 간고한 노력 중에서 대가를

치르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억지로 얻은 것은 신(神)이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았고, 어떤 사람이 남을 때렸다. 이것은 사람이 이익과 정신상에서 억지로 얻으려 하는 것으로, 보상해 주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 우주 그것은 얻는 자가 보상해 주도록 강화함으로써 잃으려 하지 않아도 잃게끔 한다. 어떻게 잃는가? 당신이 이 쪽에서 다른 사람을 때렸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겼다.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물건을 점유했다. 그럼 당신이 얼마만큼 얻었으면 당신의 다른 공간 속 자신의 범위 내에서 그만큼 큰 德(덕)이 상대방에게 날아간다. 이 德(덕)은 이익과 돈, 재물로 바꿀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억지로 잃은 것은 상대방이 보상해 주게 마련이다. 속인은 이 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나쁜 짓을 한다. 많은 사람이 장사를 하면서 남에게 사기 당했거나 혹은 핍박으로 무엇을 잃었을 때, 만약 자신이 나쁜 일을 해서 德(덕)을 잃어 조성된 것이 아니라면, 한동안 지난 후 역시 상응하는 대가를 벌어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조성한 자가 보상해 주도록 강화(強化)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흔히 그것을 우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혹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어온 것으로 여긴다. 사람은 진정한 원인을 보지 못한다.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德(더)는 지극히 소중하며 그것은 무엇으로든지 전화(轉化)될 수 있다. 현대인은 이러한 것을 믿지 않는다. 이는 과학이 이런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인류도덕 수준이 크게 미끄럼질 치도록 조성한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우주의 방대한 물질, 고급생명들은 이 우주의 관계를 확실하게 균형 잡고 있다. 당신이 마땅히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잃었다면 당신은 보상을 받고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가 저쪽에서 직접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이 잃지 않으려 해도 안 된다. 이것은 간단한 예다. 사실 피해자가 얻는 것은 이보다 더 많다. 그래서 가끔 나는 고생을 좀 겪는 것은 어찌면 나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과거의 노인들, 특히 중국의 노인들은 모두 지금 고생을 좀 겪으면 장래에 좋게 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런 이치이다. 예수는, 다른 사람이 당신의 왼쪽 뺨을 때리면, 그에게 오른쪽 뺨도 내밀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사실 현재 많은 천주교 신자와 기독교 신자들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치를 말하자면 왜 이럴 수 있는가? 예수는 단지 표면만 말했고 그것의 더욱 깊은 내포는 말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그가 당신의 이쪽 뺨을 때릴 때, 그는 당신에게 德(더)를 주고 또한 당신의 소업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럼 사람을 때리는 자의 화가 아

직 다 풀리지 않았으므로 당신이 또 저쪽 얼굴을 내밀어 그
 에게 그쪽도 더 때리게 한다면, 그가 당신을 도와 소업하고
 또 당신에게 德(더)를 준 것이 아닌가? 당신은 고통 속에
 서 당신 자신의 업력도 없어졌다. 사람은 모두 업을 빚게
 마련이다. 어떤 사람은 살생했고, 남을 괴롭혔으며, 사람을
 욕했고, 누구를 미워했으며, 혹은 무슨 다른 나쁜 짓 등등을
 한 것이 모두 업을 빚을 수 있다. 이것은 흑색물질로서 사
 람의 신체 주위에 존재한다. 그것이 한 사람의 고통과 질병,
 혹은 무슨 번거로움에 부딪히고, 장사가 안 되고, 다른 사람
 에게 얻어맞고 욕을 먹는 등등 많고도 많은 고통을 결정하
 는데, 모두 업력이 조성한 것이다. 누가 당신을 때렸을 때,
 당신을 업신여겼을 때, 당신을 때린 사람이 당신에게 德
 (더)를 줄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고통을 겪는 동시에
 당신의 흑색 업력도 德(더)로 전화될 수 있다. 이것은 일거
 양득(一舉兩得)이다. 속인으로서 그는 일거양득이다. 그
 러나 한 수련인으로서 이것은 바로 넘어야 할 고비이다.
 고통을 겪는 가운데서 고비를 잘 넘기면 心性(썬썬)을 제
 고할 수 있다. 心性(썬썬)의 제고가 바로 층차의 제고이다.
 그렇다면 공은 자라 오를 수 있으며 德(더)는 공으로 전화
 될 수 있다. 이치를 나는 투철히 말했다. 그러나 실제 수련
 속에서 당신들 자신이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한다.

사실 나는 법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사람들이 여태껏 하지 못했던 일을 했으며, 정말 사람들에게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남겨놓았다. 당신이 이 대법에 따라 수련해 나가기만 하면 당신은 틀림없이 원만을 이룰 수 있다. 이 법은 앞서사람들이 여태껏 누구도 말한 적이 없다. 특히 인류 중에서 말이다. 믿지 못하겠으면 당신들이 동서고금(古今中外)의 모든 서적을 뒤져보라. 『도덕경』, 『성경』, 『불경』에도 모두 이렇게 천기(天機)를 남김없이 드러낸 설법은 없다.

석가모니는 부처이다. 사람들은 석가모니부처가 불법을 남겨놓았다고 생각하는데 석가모니부처 자신은, “나는 일생 중에 어떠한 법도 남겨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가 말한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선종은 법이 없다고 인정했다. 석가모니부처도 법을 남기지 않았는데 누가 말해도 불법(佛法)이 아니며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말하면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완전히 빠뜨리게 이해했다. 그럼 석가모니부처가 한 말은 무슨 뜻인가? 석가모니는 신(神)으로서 그는 속인사회 중에 환생하여 사람을 제도하러 왔고 원만을 이룬 후에는 부처로 성취하였으며, 그의 말은 불성을 띤다. 그가 말한 것은 체계적으로 수련하는 불법이 아니다. 불성을 띤 말도 그 한 층 중의 법리이기는 하지만, 그것 역

시 체계적인 우주의 근본법이 아니다. 사실 후세사람들이 정리해 낸 경서도 역시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면서 체계적이지 못한데, 확실히 이러하다. 2천5백 년 전에 석가모니가 그때 사람들을 겨냥하여 말한 것인데, 석가모니도 오늘날 인류의 정황을 보았기에 그 당시 석가모니부처는 말법시기에 그의 법이 안 된다고 말했다. 사실 지금 사람들은 석가모니부처가 말한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서방 종교의 『성경』을 포함해 사람들은 지금도 진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사상이 아주 복잡하게 변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저렇게 이해하지만, 모두 현실적인 감정과 이익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 진정한 내포를 지금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전법륜(轉法輪)』, 이 책은 확실히 매우 진귀하며 인류의 어떠한 책과도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수련하는 책이며 사람의 원만을 지도할 수 있는 매우 엄숙한 대법이기 때문이다. 방금 어떤 사람이 『전법륜(轉法輪)』 이 책을 읽을 때 보면 매 한 글자가 모두 금빛으로 반짝인다고 말했다. 내 생각에 만약 여러분이 모두 견지하여 수련해 나가고 원만을 이룰 때까지 정진한다면, 당신이 정진하는 과정 중에서, 당신의 수련과정 중에서, 당신은 속인이 볼 수 없고 체득할 수 없는 많은 감

수와 광경들을 보고 체험할 것인데, 그때가 되면 당신은 이 책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말해도 모두 한계가 있으며, 많이 말하면 듣기에 아주 허황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건대 그래도 당신 자신이 깨닫고 당신 자신이 실증하라. 나는 다만 이 법이 극히 진귀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을 뿐이다.

내가 당시 이 법을 전할 때, 아주 많은 고급생명, 대각자들이 나에게 전하지 말라고 했다. 인류의 도덕이 이미 이런 정도까지 부패했는데 당신은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것을 내놓겠는가라고 말했다. 인류의 가장 좋은 시기에든 당신은 내놓고 전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야 전한단 말인가? 신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나는 방금 업력과 德(더)의 문제를 말했다. 업력과 德(더)는 사람을 따라 전생(轉生)하는 것으로, 사람은 세상에서 살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나 오로지 이러한 것이 사람을 따라 윤회하는 것이다. 윤회를 말하자면,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겠는데 종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다른 공간으로 간다고 한다. 특히 동양 종교 중에서 모두 육도윤회지설(六道輪迴之說)을 말하는데, 사람은 확실히 환생할 수 있다. 이것은 진실한 것이다. 수련계에서 그것은 의심할 바가 없으며 여러분은 모두 똑똑하게

보았다. 왜 환생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지만, 죽는 것은 후천적으로 인류의 음식물을 먹고 자란 부분이지, 사람의 생명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현재 인류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한다면, 사람의 신체는 분자 입자로 이루어진 표면물질로 구성된 것인데, 이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지구 주위의 공기, 나무, 건축물의 콘크리트, 강철을 포함해 모두 각기 다른 분자 입자로 이루어진 표면물질이다. 그렇다면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진 것이고, 원자는 또 중성자, 전자, 원자핵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원자핵 아래로 더 내려가면 또한 쿼크가 원자핵을 이룬다. 원자핵은 또한 중성미자로 이루어진 것인데 더 아래로 내려가면 사람은 모른다. 사실 사람이 죽을 때, 분자 입자로 이루어진 표면물질 공간의 육체가 마치 옷을 벗는 것처럼 벗겨질 뿐이다. 하지만 원자로 이루어지고, 원자핵으로 이루어지고, 쿼크보다 더욱 미세적인 물질로 구성된 신체부분은 전혀 죽지 않으며, 사람의 표면이 죽음에 따라 죽어버릴 수도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그 원자핵이 분열할 때면 바로 핵폭발이다.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이 있어 원자핵으로 하여금 분열하게 할 수 있겠는가? 현재 과학이 핵으로 하여금 분열하게 하려

면 상당히 큰 열량과 상당히 큰 중력의 충격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 원자핵으로 하여금 분열하게 할 수 있다. 속인의 신체가 어떻게 그렇게 큰 에너지가 있어 그것으로 하여금 분열하게 할 수 있겠는가? 화장터의 그 온도는 절대 원자핵을 분열시킬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신체를 구성하는 더욱 미시적인 물질을 화장터의 화로는 파괴할 수 없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당신 신체의 원자핵을 분열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핵폭발이다. 한 사람의 신체에 존재하는 핵물질이 폭발하면 아주 큰 면적의 도시를 휘멸시킬 수 있다. 원자는 에너지가 매우 크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가? 바로 인체 중에 원자 성분이 휘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여러분은 원자핵, 원자가 사람에 대해 강대한 방사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일종 에너지다. 사실 더욱 미시적인 물질 — 쿼크의 에너지 방사성은 원자핵의 방사성보다 더 크다. 중성미자의 방사성은 쿼크보다도 몇 배나 더 큰지 모른다. 미시적으로 내려갈수록 입자의 에너지는 크다.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데 당신들이 연마하는 공에는 강대한 원자, 중성자, 나아가 더욱 미시적인 물질이 있다. 연마해 낸 공이 무엇 때문에 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사람의 신체를 개변할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수련인은 아주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왜냐하면 공(功)과 공능(功能) 그것이 이러한 더욱 고급적인 에너지물질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법 수련 중의 이런 물질은 모두 생명과 선량한 본성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수련자의 주체의식(主體意識)의 통제를 받으며 사람 사상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과학의 방식으로 원자를 분열시킬 때 조성된 것처럼 악질적인 파괴성이 없다. 과학의 방법으로 원자탄을 폭발시켜 방사되어 나온 힘은 악하고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것은 사람과 다른 생명에 모두 해(傷害)를 끼치며 사람의 생존환경에 대한 해악도 매우 크다. 그러나 수련인이 방사해 낸 에너지는 의식이 있고 올바른 작용을 일으킨다. 중국과학원의 과학연구원들이 나를 측정했는데 내가 설법할 때 방출한 에너지물질을 그들은 측정할 수 있었다. 중국과학원의 고에너지 물리 연구소는 전문적으로 고에너지 물리를 연구하는 부서인데 그들은 회의장 네 모서리와 가운데 각기 여러 곳에 측정 계기를 설치했으며 내가 설법하는 테이블 위에도 측정 계기를 설치했다. 측정 중에 그들은 내가 내보내는 에너지에는 원자성분 외에도 중성자 성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물론 그는 거기까지밖에 측정할 수 없었으며 더욱 미시적인 물질은 그들도 측정할 계기가 없어 측정하지 못했다.

그들이 매우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내가 내보낸 에너지마당의 분포가 고르고 에너지는 겨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 과학연구에서 핵물질이 나오면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어디로 방사할지 모른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또한 가까운 곳이 강하고 먼 곳이 약하며, 방사 중에 모든 것을 손상시킨다. 물론 현재 과학은 완벽하지 못한 것으로, 그것을 너무 미신하면 인류에게는 극히 해롭다.

방금 내가 말했지만,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죽음에 따라 사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의 元神(웬선)은 이 공간 육신의 사망 과정에 해탈하여 나온다. 그는 본래 다른 공간에 있으며 출생할 때 이 공간의 인체와 합쳐서 하나가 된 것이다. 이 공간의 신체가 죽을 때, 元神(웬선)도 해탈하여 나온다. 그러므로 종교에서 말하는 육도윤회 역시 진실한 것이다. 생명은 육도윤회 속에서 윤회하여 환생할 수 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는가 하면, 물질로 환생할 수 있고, 동물로도 환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고급생명으로 환생하거나 다른 것들로 환생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천안통(天眼通), 혜안통(慧眼通), 법안통(法眼通), 불안통(佛眼通) 등 5통을 말한다. 만약 법안통까지 열렸을 때면, 당신 앞에 펼쳐지는 세계는 이런 모양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모양인가? 당신은 당신의 눈이 당신이

머물고 있는 층차 중에서 어떠한 물체든 꿰뚫을 수 있어 더욱 미시적인 물질을 볼 수 있음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물체도 모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물체는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음을 발견했을 때, 그것은 당신과 소통하는데 언어로 소통하고 사유로 소통한다. 어떤 속인은 그야말로 아라비안나이트, 기이하고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수련 중의 일이며 法輪大法(파룬파파) 수련생들을 상대로 한 말이다. 여러분은 모두 수련인이다. 나는 속인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며 또 함부로 속인에게 말해서도 안 된다. 많은 속인들이 믿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 상태에 이르면 당신은 모든 물체의 생명, 그것이 이전에는 사람이었는데 죽어서 또 다른 물질로 환생했음을 발견할 것이다. 여기까지 말한 김에 내가 말해 주겠다. 환생하는 중에 사람은 업력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德(덕)도 지니고 있다. 현재의 인류는 도덕이 부패해짐에 따라 德(덕), 이런 물질이 갈수록 적어지고 업력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생명은 상호 환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의 몸에만 시커면 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체에까지도 모두 시커면 업력이 있다. 왜냐하면 생명이 육도윤회 할 때, 이러한 업력을 지니고 가기 때문에 어떠한 물질도 모두 업력이

존재하며 모두 병을 초래할 수 있다. 업력이 인류 이 공간에 반영되어 오면 바로 미생물인 바이러스다. 현재 업력이 많아서 어떠한 것이든 다 업력을 지닐 수 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전에 중국 농민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손에 상처를 입으면, 흙가루를 상처에 바르고 그냥 두어도 상처는 금세 나았다. 오늘날 당신은 흙을 만지지 말라. 속인은 그것에 조금 닿기만 해도 염증이 생기고 또 파상풍에 걸려 죽을 수도 있다. 무엇 때문인가? 이는 현재의 흙이 모두 업력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고층 공간에서 지구를 되돌아보면 곳곳마다 모두 업력이고 검은 물질이 아주 거세다. 사람의 눈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도 좋다고 느낀다.

여러분은 이 유행성 독감을 알고 있지 않은가. 유행성 독감은 실질적으로 바로 농도가 아주 큰 업력 덩어리가 굴러와 조성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암이요, 에이즈요 등등은 겨냥성이 있는 악성 업력병(業力病)이다. 에이즈는 성 문란이나 동성연애에서 오는데, 이런 것들은 밀도가 더욱 큰 업력이다. 일반적으로 업력이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병에 걸린다. 농도가 큰 업력이 어느 지역에 나타나면, 그 지역은 곧 전염병이 발생하는데, 흔히 그 지역 사람들이 빚은 업이 매우 커서 조성된 것이다.

내가 왜 이것을 말하는가? 나는 인류의 도덕이 아주 심하게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음을 보았다. 만약 더 이렇게 내려간다면 사람은 더욱 큰 위험에 직면한다. 만약 하늘의 신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면 그때야말로 정말 위험하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행위가 있다. 사람의 외부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사람이 아니다. 그 원숭이도 사람과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만약 사람이 사람의 도덕규범이 없고 사람의 도덕표준이 없으면, 신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람은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한다. 사람은 신이 만들었고 역시 신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정통 문화는 신의 뜻에 의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규범을 벗어나면 신은 당신을 도태시킨다. 내가 보니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장단에 춤추듯, 남들이 하는 대로 하여 일체를 망친다. 자신을 망치고 사회도 망친다. 특히 인류의 도덕을 무너뜨린다. 현재 가장 뚜렷한 현상은 문화의 변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성정을 악(惡)하게 변화시킨 것이다. 그 때문에 사회상에 무슨 마피아요, 마약 흡입과 마약 판매, 성 문란이나 동성연애, 인류가 심한 거짓말 속에 휩싸여 있는 등등 아주 많은 것들이 나타났으며, 심지어 마피아의 두목이 승배 대상이 되었다. 이런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라. 그것이 정상인

가? 인류의 관념은 모두 얼마나 큰 변화가 발생했는가. 이런 것에만 그치지 않고, 각 분야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모두 아주 큰 마성(魔性)이 존재한다. 내가 이 법을 전하는 목적은 바로 사람을 이 험악한 데서 이탈시켜, 정말로 수련 중에서 제도하자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수련해 나아간다면, 나는 정말로 당신이 원만을 이루게 할 수 있다.

방금 이 사회의 현상을 말했다. 지금 나는 사회를 위해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 법은 사람을 제도할 수 있고 사람을 선(善)해지도록 가르쳐 진정으로 사람의心性(心性)에서부터, 본질적으로 당신을 개변시킬 수 있다. 그럼 많은 사람들, 그가 수련하지는 않지만 이 법을 알기만 하면 곧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나쁜 사람이 되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상해(傷害)가 되는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박수), 그는 곧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럼 다시 말해서 정법이 일단 전해지면 그는 필연적으로 사회에 대해 유익한 것이다.

나는 이 몇 년간 법을 전수하는 중에 줄곧 이런 한 가지 원칙에 의거했다. 즉 사람에 대해 책임지고 사회에 책임지는 태도로 이 일을 했다. 나는 여태껏 함부로 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내가 법을 전수하기 위해 천리 길도 마다하지 않고 싱가포르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당신들에게 한

폰도 요구하지 않고 바로 돌아갈 텐데, 나는 다만 이 법을
 당신들에게 남겨놓을 뿐이다. 많은 수련생들이 나에게 묻는
 다. — 사부님, 이 우주에는 잃지 않으면 얻지 못하고, 얻으
 려면 잃어야 하고 잃어야만 얻는다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
 럼 당신은 이렇게 아무런 대가없이 우리를 제도하고, 우리
 에게 이렇게 많은 좋은 것을 주고, 우리에게 법을 가르치고
 우리가 수련하는 것을 지켜주며 우리를 도와 소업해 주고,
 아울러 우리의 몸에 많고도 많은 것을 넣어 주었으며 또 부
 동한 층차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 공은 사부에게 달렸다고 했는데, 그럼 당
 신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말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 왜냐하면 나는 바
 로 이 일을 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
 었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오직 여러분의 그 마음, 수련하는
 마음, 선을 향한 마음을 요구한다. (박수)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점유한 게 아닌가? (웃음) 만약
 아직 시간이 있다면 나는 계속 말하겠다. 부처로 수련하는
 방법은 매우 많다. 여러분 알다시피 당신들이 수련하는 法
 輪功(파룬궁)은 불법이치(佛理)이다. 나는 석가모니 그때
 의 언어로 말하지 않았을 뿐이며 또 사용할 수도 없다. 오
 늘날 언어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다만 지금의 언어로 설법하

고 지금의 언어로 공을 전할 수 있을 뿐이다. 내가 오늘 전하는 법은 당시 석가모니가 말한 불법과 차이가 있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내가 수련자에게 가르치는 수련 방식, 수련 대상이 모두 과거의 방식이 아니며, 수련자에 대한 心性(심성)과 층차에 대한 요구도 더 높고 과위(果位)도 더 높으며, 내가 말하는 것은 우주의 가장 본질적인 법이기 때문이다. 석가모니부처가 그때 한 말은 불성(佛性)을 띠고 있어 그 한 층의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를 만든 근본법, 최고의 진리가 아니다. 우주 최고의 진리는 바로 眞(眞)·善(善)·忍(忍)이다. 어떤 물질이든지 강(鋼)·철(鐵)·나무·돌·공기·물·흙 모든 미시적 물질에는 그의 본원(本源) 구성에서 그의 표면물질에 이르기까지 모두 眞(眞)·善(善)·忍(忍) 특성이 존재한다. 전체 우주의 일체 생명, 일체 물질은 모두 眞(眞)·善(善)·忍(忍)이 관통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주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다. 나는 현대의 가장 쉽고 통속적인 언어로 이치를 아주 알기 쉽게 말했다. 대법은 피라미드처럼 위로 갈수록 더 간단하고 아래로 갈수록 더 방대하고 복잡하다. 그러므로 인류와 우주의 하층은 복잡하다. 제일 높은 곳, 불법의 최정상은 곧 眞(眞)·善(善)·忍(忍) 세 글자로 개괄할 수 있다. 우주 중의 일체 최고 물질과 요소는 모두 “眞(眞)·善(善)·忍(忍)”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가 바로 우주의 정신(精神)이고, 그가 바로 우주의 특성이며, 그가 바로 진정한 불법의 근본이다. 과거 이것은 최고의 천기(天機)였으며 많은 고급생명들도 다 모르고 있었다. 내가 비록 책에서 많은 천기를 계시하였고 여러분이 다 보았지만 내가 함부로 천기를 누설한 것이 아니다. 리홍쯔(李洪志)가 오늘 함부로 천기를 누설하고 목적 없이 말한 후, 여러분이 기뻐하다 만다면, 혹은 여러분이 이것을 지식으로 여겨 듣는다면, 내가 여기에서 함부로 하늘의 이치를 파괴한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리홍쯔(李洪志)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없으며 진작 응보를 받아 어디에 갔을지 모른다. 법을 전하는 가운데서 내가 여러분을 책임짐은 여러분이 모두 수련하여 올라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실천 중에서 나는 또 줄곧 사람에게 대해 책임졌으며 확실하고도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수련하여 올라왔다. 그러므로 나의 이번 일은 목적 없이 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충동으로 전한 것도 아니다. 사실 이번 일은 역사상이 이미 배치해 놓았고 진작 모든 준비를 해놓은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법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당신이 인연이 있고 당신의 인연이 닿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인간 세상에서 얼마나 환생하였더라도, 오늘 인연이 닿았기에 당신이 법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석가모니부처는 비록 이 우주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큰지 보지 못했고 또한 더 미시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보지 못했으나 그는 이미 아주 미시적인 데까지 보았다. 그는 모래 한 알 속에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가 있다고 했다. 이 삼천대천세계는 무슨 뜻인가? 예를 들면 우리 이 은하계 속에 부처는 인류와 천지 체계와 신불(神佛)이 존재하는 생명 체계 속에 또 인류처럼 존재하는 사회가 삼천 개 들어 있는 것을 보았으며, 매 한 대천(大千)세계 중에 무수한 생명이 존재하는데 천신(天神)과 지구 인류의 체계와 같은 것을 보아냈다. 부처는 모래 한 알 속에 이러한 세계가 삼천 개 있다고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석가모니가 말한 것은 얼마나 미시적이고 얼마나 장관(壯觀)인가. 이것은 허황하고도 또 허황한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지구가 태양을 에워싸고 돌고 있는데 지금 과학자들은 전자 역시 같은 방식으로 원자핵을 에워싸고 돌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지구가 태양을 에워싸고 돌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같은 것이다. 그럼 만약 그 전자를 우리 지구만큼 크게 확대한다면 당신은 위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는지, 그러한 생명이 어떤 형상인지 보아낼 수 있다. 더욱 미시적인 공간에 더 미시적인 생명이 존재한다. 석가모니는 모래 한 알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있다고 했

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추리한다면 석가모니가 말한 이치에 따라 그 모래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있다면, 그 모래 속의 삼천세계(三千世界)에는 인류처럼 강과 호수, 바다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럼 그 강과 호수, 바다 속에 또 모래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모래 속에 또 삼천대천세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 이 논리대로 추리해 내려간다면, 그 모래의 모래 속에 또 삼천대천세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발견했다. 더욱 높은 층차의 대각자들은 모두 생명과 물질은 끝없이 미시적이라고 여긴다. 그러면 물질은 어느 정도로 미시적인가? 아주 높은 신불(神佛)도 그것의 본원을 보지 못하며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본원을 보지 못한다. 인류의 과학은 이 면에서 아직 소아과에도 미치지 못한다! 영원히 모두 미지이며 불법에 비할 수 없다. 현대 과학 그것은 겨우 중성미자, 쿼크 이 작은 한 점까지 인식할 뿐이다. 사실 쿼크, 중성미자를 현대 과학은 다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만 측정해 냈지 보지는 못한다. 또한 그렇게 큰 배수의 현미경도 없다. 그러므로 방금 내가 말했다. 석가모니부처도 물질의 본원이 무엇인지 보아내지 못했고 또한 우주의 최대 물질이 무엇인지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는 ‘크기로는 밖이 없고 작기로는 안이 없다(其大無外, 其小無內)’라고 했다. 크기로는 이

우주가 변두리가 없고 작기로는 그 물질의 밑까지 보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여래불(如來佛)은 이미 아주 대단하다. 그가 이 정도까지 볼 수 있었으나 최후까지는 보아내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이 우주는 매우 광대하고 물질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다. 물질의 본원(本源)을 말하자면 사실 이미 물질이라 할 수 없다. 眞(쩐)·善(싼)·忍(런)의 법력(法力), 특성이 본원 요소를 초기 물질로 이루었다. 그런 다음 또 眞(쩐)·善(싼)·忍(런)으로 층층의 더욱 큰 부동한 층차의 물질을 이룬다. 줄곧 가장 큰 층차의 물질에 이르기까지, 줄곧 인류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중성미자, 쿼크, 원자핵, 원자, 분자에 이르기까지, 줄곧 표면물질에 이르기까지 모두 眞(쩐)·善(싼)·忍(런) 이 특성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우주의 최종적 이치는 바로 “眞(쩐)·善(싼)·忍(런)”이다. 그가 바로 불법의 근본이다.

말하자면 세 글자는 아주 간단하다. 만약 이 법을 확장한다면 매우 크다. ‘진(眞)’에 매우 많은 부동한 층차의 이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善)’과 ‘인(忍)’에도 매우 많은 부동한 층차의 이치를 포함하고 있다. 속인 이 일보에 이르렀을 때, 그 ‘진(眞)’에는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 등을 포함하고 있고, 매우 많은 사람의 이치를 포함

하고 있다. ‘선(善)’이 속인 이 층차에 이르면 정(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眞(眞)·善(善)·忍(忍), 우주의 진정한 근본적인 대법 중에서 파생되어 나온 법리이다.

정(情)을 말하자면, 만약 인류가 정이 없다면, 사람은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는 외계의 생물처럼 냉혹하며, 다른 하나는 신처럼 자비를 구비할 수 있다. 바로 사람은 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다. 사람의 기뻐함과 기뻐하지 않음, 이것이 정이다.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며, 당신이 누구에게 화를 내고, 누구에게 우호적이며,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즐겨하고,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얻으려 하며, 당신이 큰 벼슬을 하려하고, 당신이 하려는 일체 일의 취미, 당신이 어떠한어떠하게 …… 하려하는, 인간세상의 일체가 모두 이 정 속에 있다. 사람은 바로 이 정에 이끌려 집착하며 추구하고 있다. 법이 인류사회의 이 단계에 이르러 사람을 육성하고 사람의 공간을 만들었으며, 동시에 사람의 상태를 확립했다. 수련은 실질상 바로 사람의 상태에서 벗어나오는 것으로 정에 이끌리는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고, 수련 중에서 정을 점차적으로 담담히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로써 점차적으로 자신을 제고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정이 없으면 사는 것이 얼마나 재미없겠는가, 영화도 안 보고, 예쁜 친구도 찾지 않고, 맛있는 것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럼 얼마나 재미가 없겠는가.'라고 생각한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데, 이것은 당신이 속인의 그 각도에서 이해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높은 경지로 승화된다면 당신은 그 한 경지 중의 아름다운 상태가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인데, 인류 여기보다 더 아름다운 일체, 아름답기로 말할 방법이 없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 아름다움을 얻으려면, 당신은 정에 이끌려 사람의 이익에 대해 집착하는 속인의 이 마음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한다. 속인의 집착을 내려놓아야만 당신은 비로소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은 모두 수련생이므로, 수련과정 중에서 당신들에 대한 나의 요구는 매우 높을 것이다. 수련과정 중에서 매우 많은 속인의 집착심을 일시적으로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다. 내가 오늘 설법을 마치고 난 다음, 당신들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해낼 수 있다면 즉시 부처가 될 것이다. (박수) 그러나 초심자는 누구나 해내기 어렵다. 사람의 일체를 모두 단번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서 법을 들으면서 모두 아주 편안하다고 느끼며,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 좋아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법의 위덕이기 때문이다. 정법 수련이 지닌 에너지는 자비롭고 상화한 것으로, 일체 바르지 못한 요소를 제

거하고 개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으면 모두 매우 편안한 감을 느낀다. 장래에 당신들이 수련 성취했을 때도 이리할 것이다. 처음 시작할 때 당신들은 아직 단번에 도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매우 많은 집착을 제거하지 못했고 정념이 아직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속인 사회 중에서 당신이 부딪힌 일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과 이익상의 마찰이 또 일정한 교란을 일으킬 것이며, 동시에 소업 중에서 당신의 신체가 편하지 않거나 힘들거나, 곤란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파악하고 당신이 자신을 제고해 올라올 수 있고 속인처럼 어떠한 모순을 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바로 제고하고 있으며 바로 정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때릴 때, 자신이 연공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당신들은 속인이니까 나는 당신과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바로 제고 중에 있다. 당신이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음”을 확실히 해내고, 다른 사람이 이익상에서 당신과 빼앗고 다룰 때, 당신이 이 마음을 담담하게 내려놓을 수 있다면, 비록 이것은 다만 일념의 차이이지만 당신은 이미 속인과 천리나 차이가 난다. 하지만 당신이 이 정도로 해내려 한다면, 속인 중에서 천천히 수련해 올라와야만 도달할 수 있다. 나는 단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해내기가 아주 어렵다. 반

드시 실천 속에서, 고흘 속에서 집착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수련해 올라와야만 착실한 것이다.

인류의 과학은 영원히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인류의 지혜는 고급생명에게 제약 받고 통제받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인가? 사람은 신이 만들었고 사람의 이치도 반대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부처’인가? 그는 그 한 층 중생의 보장이고, 중생의 비호자(庇護者)이며, 우주 진리의 수호자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사람이 각종 집착심, 명(名), 이(利), 칠정육욕, 질투심을 갖고서 부처 거기로 간다면 부처와 쟁투할지도 모른다. 그래서야 되겠는가! 그러므로 당신은 속인 중에서 이런 사람의 마음을 제거해야만 그 경지와 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 지금 어떤 화상(和尚)은 “당신이 바로 부처요! 당신이 염불했으니 생을 마친 후에 당신은 부처가 되며 부처가 되지 않으려 해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라고 속인에게 말한다. 이것은 부처를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화상은 사람이다. 진정하게 수련할 수 있는 이도 다만 수련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수련을 잘하지 못하면 속인과 같으며 아무 것도 아니다. 그가 만약 잘못하면 죄가 속인보다도 더 큰데, 이것을 “부처의 옷을 입고 불법을 파괴한다.”라고 일컫는다. 그러므로 그런 진정으로 수련하지 않는 출가인을 맹신

하지 말라. 진정한 수련은 바로 사람의 이 마음을 수련하는 것으로, 사람의 그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만약 사람이 과학기술 수단으로 그 경지에 도달한다면, 그럼 정말로 성구대전(星球大戰), 우주대전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 그가 어찌 당신으로 하여금 그 경지에 도달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다만 과학 환상일 뿐 영원히 실현하지 못한다. 만약 사람이 더욱 높은 층차에 가려하고, 더 고급적인 생명을 인식하려 하고, 당신이 고급생명으로 되고 싶고, 진정하게 우주의 진리를 인식하고 싶다면, 오직 한 갈래 길뿐인데 바로 수련이다.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앞으로 당신들이 속인사회 중에서 어떤 모순에 부딪히든,心性(썩썩)상의 마찰이라든가, 누가 당신을 화나게 했다고든가, 누가 당신의 이득을 점유했다고든가, 누가 당신을 괴롭혔다고든가, 당신이 어떤 고통을 받았든지 간에,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수련하고 싶다면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데, 당신의 이 인생의 길을 새롭게 배치해 준다. 무엇 때문에 다시 배치해 주는가? 사람은 사람의 일생이 있으며 사람이 수련하기 전에는 그의 장래도 속인의 일생이기 때문에 어느 날에 가서는 죽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좀 오래 살겠지만 언

젠가 그는 큰 병에 걸릴 수 있으며, 한번 걸리면 몇 해가 걸릴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수련하겠는가? 혹은 어떤 사람은 어떤 큰 난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면 수련할 수 없다. 이 길을 내가 당신에게 모두 청리해 주어야 하며 이런 것을 모두 청리해 버리고 한 갈래 수련의 길을 배치해 준다. 물론 이것은 속인에게는 함부로 해줄 수 없으며 단지 수련하는 사람에게만 해줄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수련인은 이렇게 특수한가?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생명이 이 지구에서 온 것이 아니라 더욱 고층의 공간에서 온 것이며, 되돌아가는 그것이 당신 사람이 사는 목적이다. 그러므로 수련하려는 이 마음이 나오면 금보다도 더 빛나 시방세계의 부처가 모두 볼 수 있다. 사람이 이 일념을 움직여 수련하려 하면 바로 이렇게 진귀(珍貴)하다. 속인에게는 함부로 해줄 수 없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속인 그는 전생에 좋은 일을 하지 못했으면, 이 생애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함부로 그의 업을 제거해 주고 함부로 그의 난을 제거해 준다면 사람이 나쁜 일을 하고서 갚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불법이치(佛理)를 파괴하고 천법(天法)을 파괴하는 것이다. 어디 이런 이치가 있는가? 절대로 없다. 불도신(佛道神)은 모두 우주의 이치를 수호하고 있으

며, 眞(쩐)·善(싼)·忍(린) 법리를 수호하면서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련인이라면 당신이 어떤 고통을 감당할 때, 어떤 마난(魔難)에 부딪혔을 때, 당신은 네 가치를 얻을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괴롭힐 때, 당신의 이득을 점유했을 때, 당신의 이익을 얻었을 때, 그는 모두 당신에게 德(더)를 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또 더욱 큰 이익으로 바뀔 수 있다. 동시에 당신이 고통을 감당할 때, 당신은 잃은 쪽에 속한다. 그럼 당신은 고통을 당한 쪽이므로 자신의 업력도 德(더)로 전화될 것인데, 얼마만큼 큰 고통이면 그만큼 크게 전화된다. 그럼 당신은 수련인이므로 이 모순 속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과 견식(見識)을 같이하지 않았으며 당신 마음속에서 이 문제를 그와 같이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공은 자라 올라온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당신의 心性(씬씽)이 제고되어 올라왔기 때문이다. 心性(씬씽)이 얼마만큼 높으면 공도 그만큼 높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이다. 이 우주의 법이 일체 생명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心性(씬씽)이 제고되어 올라오지 않았는데 공이 높이 자라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 우주의 일체 물질은 모두 생명이며 그들은 모두 眞(쩐)·善(싼)·忍(린)이 육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도 사람을 제약하고 있어 당신이 이 표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일체 요소가 모두

당신으로 하여금 올라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마치 내가 말했던 이치처럼 병에 더러운 것을 가득 채워 물속에 던지면 ‘퐁당’ 하고 단번에 밑바닥까지 가라앉는다. 당신이 더러운 것을 조금 쏟아내면 그것은 바로 조금 떠오르는데, 조금 쏟아버리면 조금 떠오른다. 당신이 병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전부 쏟아버리면, 당신이 아래로 눌러도 가라앉지 않고 그것은 떠오를 것인데, 그것이 마땅히 그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만약 진짜로 수련하면 그것은 바로 더러운 것을 쏟아버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 얼마를 쏟아버리면 당신은 그만큼 수련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치이다.

말할 것이 아주 많다. 나는 여러분에게 법을 많이 얻게 하려 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게 되면 당신들에게 아주 많이 알려주고 싶다. 물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아주 제한된 시간 내에 당신들에게 다 말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법륜(轉法輪)』 이 책은 내가 중국에서 법을 전할 때, 내가 몇 개 학습반에서 설법한 내용이다. 나는 그를 한데로 종합한 다음 내가 직접 수개(修改)한 후 출판했다. 그러므로 그는 체계적으로 수련을 지도하는 법이다. 현재 또 내가 학습반에서 한 녹음, 녹화가 있는데, 여러분은 참조해서 배우고 들을 수 있다.

또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나는 불법의 위력, 나 자신의

많은 능력을 모두 그 책 속에 넣었으며, 이 법 속에 넣었다.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와 이 책을 막론하고 당신이 오직 보기만 하면 당신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당신이 오직 보기만 하면 당신의 병은 없어질 것이다. 당신이 오직 수련만 하면 당신의 신체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당신이 오직 수련을 견지한다면, 당신은 능력이 있을 것이고, 당신은 볼 수 있을 것이며, 당신은 들을 수 있을 것인데, 당신은 대법의 홍은(洪恩)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진수자(眞修者)에게 일체 불법의 위력을 모두 줄 것이며, 당신이 오직 수련만 하면 얻을 수 있다. 물론 수련하지 않으면 당신은 얻지 못한다.

책 속의 내포는 매우 높고 깊어 첫 번에는 보아낼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수련하게 했기 때문이다. 속인에서 시작한 이 한 층차에서는, 이 층차의 법이 당신의 수련을 지도한다. 그렇다면 당신이 수련하여 제고했을 때도 여전히 이 이치로 당신의 수련을 지도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중학교에 다니는데 초등학교 교과서로 당신을 지도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초등학생이다. 당신이 대학을 다니는데 여전히 초등학교 교과서로 당신을 지도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초등학생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어느 층차 중으로 수련했으면 그 층차의 법이 체현되어 나

와 당신을 지도해 주어야만 당신은 비로소 수련해 올라갈 수 있다. 『전법륜(轉法輪)』 이 책은 내가 속인 이 경지에서 줄곧 우주의 최고 경지에 이르는 법리를 결합했으며, 모든 층차의 법리를 모두 이 책 속에 넣었는데, 표면적으로는 보아내지 못한다. 첫 번째 볼 때는 바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가 하는 이치이고, 당신이 두 번째로 볼 때는 그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며, 세 번째에 당신은 그가 진정한 수련서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고, 당신이 더 본다면 그가 천서(天書)임을 발견할 것이다. 똑같은 한 마디 말이라도 당신은 부동한 층차, 부동한 경지에서 부동한 인식, 부동한 이해가 있을 것이다. 책 속에 담긴 내포는 아주 크다. 현재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백 번 이상을 보고도 여전히 본다. 만 번 이상을 보아도 당신은 볼 것이 없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당신은 아직도 아주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발견할 것이며, 당신은 또 매우 많은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매우 진귀하다. 내가 여기에서 모든 것을 일일이 다 말하기란 불가능하다. 만약 당신이 수련할 수 있으면, 내 생각에 당신이 진지하게 그를 배우고 반복적으로 보면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다. 당신이 첫 번째 볼 때의 의문들은, 당신이 책을 두 번째로 볼 때

모두 다 해답을 얻을 것이다. 그럼 당신은 새로운 의문이 생길 것인데, 당신이 다시 세 번째로 볼 때 당신은 이런 의문들의 해답을 모두 얻을 것이다. 그럼 또다시 보면 더 높은 의문이 생길 것인데, 당신이 오직 끊임없이 책을 보기만 하면 모두 당신에게 해답해 줄 것이다.

내가 한 말이 여러분의 구미에 맞을지 모르겠다. (박수)
여러분이 수련하여 올라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좀 높게 말했다. 적당하지 않은 곳이 있으면 여러분이 제출할 수 있다. 여러분 감사하다. (장시간 박수)

미국제1차설법

李洪志

1996년 10월 5일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서

미국제1차설법

李洪志

1996년 10월 5일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서

내가 여기에 앉으면 여러분이 모두 볼 수 있다. (박수)
많은 사람들은 아주 먼 곳에서 달려왔으며 아침 일찍 차를 운전하고 왔다. 나는 여기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연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나 역시 줄곧 미국에 와 보고 싶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올 기회가 없었다. 이번에 여러분과 만나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인연이며, 이 공(功)을 배울 수 있는 것 역시 인연이다. (박수) 나는 휴스턴에서 강연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더욱 많은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는데, 여기를 지나가게 되어 먼저 여러분을 만나보는 것이다. (박수)

어쨌든 여러분은 이 공(功), 이 법에 대해 인식이 깊기도 하고 열기도 하며, 이해의 정도 역시 모두 같지 않다. 내가 전한 것은 불가의 수련방법이기 때문에, 불가의 말로 하자면 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연이다. 당신은 아직도 그가 얼마나 진귀한지를 모르고 있다. 당신이 그가 진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매우 행운이라고 느낄 것이다.

내가 말한 이러한 이치와 여러분을 지도하여 수련하도록 하는 것은 천백 년 동안 여태껏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이 없었다. 실제상에서 시간적으로 더욱 길며 역사상 말한 사람이 전혀 없었다. 수련을 말하면 여러분은 중국 이 특수한 환경 중에서 역사상 허다한 수련인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것인데, 사실 그들은 여전히 있으며 또한 아주 많은 수련인들이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는 곳에도 모두 줄곧 수련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온 나이가 비교적 많다. 그가 세간으로 들어가지 않고 속인과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속인도 알지 못한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들이 이른바 현실을 인식하게 될수록, 인류의 진실한 역사와 진정한 현실을 점점 더 저버리게 된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말할 때마다, 마치 신화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바른 종교와 많은 오랜 전설이 왜 몇 천 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가. 이는 반드시 그것으로서 일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 속인 사회 중에도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많은 각종 현상이 있는데, 혹은 만났거나 혹은 들었거나 혹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들로서, 현재의 사유방법과 현재의 과학이론으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이는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한 그만한 높이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로 모두 존재한다고 나는 말한다. 현대인들은 과학을 필요 이상으로 믿고 있지만, 과학은 아직 거기까지 발달하지 못했기에 과학으로는 이 층의 공간을 돌파하여 진상(眞相)을 인식할 방법이 없다.

사람들은 현재의 과학기술이 매우 발달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주의 진실한 모습과 비교하면 매우 저능(低能)하다. 사람은 컴퓨터가 매우 발달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실제상 사람의 두뇌와 비교할 수 없으며 사람의 두뇌는 영원히 인류의 수수께끼(迷)이다. 장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법을 배우고 수련하여 개공개오(開功開悟), 원만(圓滿)으로 수련되는 정도에 도달할 것인데, 그때는 매우 미시적(微觀)이고 매우 거시(洪觀)적인 층차에서 생명과 우주, 물질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물질은 미시적인 입자로 더욱 큰 한 층의 입자를 구성하고, 그런 다음 더욱 큰 한 층의 입자가 또 더욱 큰 한 층의 입자를 구성하는데, 줄곧 표면물질에 이르기까지이다. 마치 중성미자(中微子)에서 쿼크에 이르고 다시 원자핵에 이르며 그런 다음 다시 원자에 이르는 것과 같다. 인류의 가장 표면을 구성한 이 층의 물질, 이 표면 형식의 분자입자는 모두 부동한 더욱 미시적인 물질로 구성된 것이다. 현재의 과학자들은 단지 미시적인 입자의 조합

(組合), 현미경으로 알 수 있는 고만한 것, 분자의 존재, 원자의 존재, 중성미자에 이르는 것까지 알 수 있을 뿐이다. 더 아래로는 측정기기로도 관찰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큰 배수(倍數)의 직경범위가 아주 큰 현미경이 있어 볼 수 있는 것이 분자입자 한 개나 몇 개 분자입자가 아니라 미시적인 입자로 구성된 그 층면이라면, 사람은 곧 다른 공간을 보게 된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바로 이 사상의 틀을 돌파하지 못했으며, 단지 그 미시적인 입자의 한 점, 몇 개의 점을 관찰하는 것만 중시했고, 이 관념을 돌파하고 그것을 연계시켜 그것의 전체 미시적 입자 존재의 그 면이 무엇 인지를 보지 못했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공간이다. 바로 이렇게 간단하다. 현재 이러한 것들을 돌파하지 못했고, 현재의 기술 역시 도달하지 못했다.

방금 나는 이러한 것들을 현대인의 사유방식과 언어로 말했다. 이것은 사람이 알고 싶어 하지만 또한 사람에게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다. 우주의 진정한 이치를 사람들에게 제시한 사람이 없으며 과거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했다. 천리(天理)에 따르면, 사람은 아주 높은 하늘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속인사회까지 내려온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지구까지 내려온 것이다. 수련계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인(猿人)에서부

터 진화되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질상 고층생명이 본 것 역시 확실히 본질적으로 다르다. 현재 실증과학의 인식은 인위적으로 허다한 가상(假相)을 만들었으며 인류 또한 과감하게 타파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은 이런 몹시 낮은 인식으로 마치 일부 현실적 이익과 과학적 지식을 얻게 된 것 같지만, 사실 모두 인류, 생명과 우주에 대하여 파괴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생명에게 승화할 수 있는 것을 갖다 주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권위를 위해, 자신의 이른바 학문, 지식을 수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타파되지 않기 위해 수호하고 있으며, 남들보다 하여금 더욱 높은 인식을 가질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일부 것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감정적으로 이런 이지적이지 못한 행위를 수호하고 있다. 이리하여 우주의 진상에 대해 오히려 인위적으로 자신이 자신을 봉폐(封閉)해 버렸다. 수련은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제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련하는 사람은 생명과 우주의 진상을 볼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다.

현대인들이 현대과학에 의해 너무나 심하게 봉폐되었기에 이러한 진상이 모조리 미신으로 간주되고 있다. 사실 바로 미신이라 해도 과학자로서 두뇌가 있는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왜 그것이 미신인지, 왜 사람들이 미신을 믿으려 하는

지 연구해 보아야 한다. 현대인들은 감히 건드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내 생각에 미국의 이 환경에서는 아마 많이 좋아질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의 실증과학이 조성한 한계 때문에 인위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사상을 모두 봉쇄했다. 이리하여 생명, 우주 및 물질의 진상을 인식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수련을 통해서 우주의 진상을 인식할 수 있는데, 특히 불법(佛法)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현재 오로지 현대과학만을 믿고 있으며, 그러한 것들은 모두 신학, 종교에 속하며 과학이 아니라고 여긴다. 사실 이는 인류가 우주를 인식하는 유일한 경로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인슈타인도 만년에는 종교를 믿었다. 과학에서 큰 성취가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최후에는 다들 종교로 들어갔다. 그들은 종교 중에서 말한 이치가 더욱 높은 진리라는 것을 발견했다. 인류의 인식은 한계가 있으며, 이 한계를 초월하면 과학은 곧 무력해진다. 그러나 불법은 우주의 일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들은 신이 말한 것이야말로 더욱 높은 과학이라는 것을 발견하여 종교로 들어간 것이다.

물론 나는 이 법을 기공이란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다. 사실 안에 포함된 내포는 매우 크며 역사상 여태껏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 나는 그것을 모두 말했다. 만

약 당신이 착실하게 『전법륜』 이 책을 보면, 그가 대단히 진귀함을 발견할 것이다. 그 속에는 아주 많은 천기(天機)가 있는데, 단지 표면적으로 보기만 해도 역시 사람으로 하여금 적지 않은 혜택을 얻게 하며, 일반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될 것인가를 알게 한다. 수련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내포 중의 것들을 보아내지 못하며 『전법륜』 속의 고층의 이치를 보지 못한다. 하지만 그가 포함한 내포는 매우 커서 사람으로 하여금 수련하여 월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월만뿐만이 아니고 나아가 생명으로 하여금 더욱 높은 경지 속으로 승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한다.

여러분 알다시피 수련과 신체단련은 같지 않다. 내가 공을 전함이 단지 여러분의 신체단련을 위한 것뿐이라면, 나는 이토록 큰 법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바로 여러분에게 이 법을 얻게 함으로써 이 우주의 진상을 알게 하고, 당신이 수련할 수 있도록 하며, 더욱 높은 층차로 자신을 제고케 하여 당신 개인을 승화시키려 했다. 수련 중에서 당신이 이렇게만 하면, 이 책은 바로 당신을 지도할 수 있으며 이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수련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는 보아내지 못한다. 왜 보아내지 못하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이 책을 보면 사람에게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지 가르치는 이치를 말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

다. 두 번째로 다시 보면 다른데, 이때 사람은 그가 수련서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이 다시 세 번째로 보면, 당신이 정말 연속적으로 세 번을 볼 수 있으면, 당신은 이 책을 다시는 놓고 싶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있으면 당신은 곧 들고 볼 것인데, 당신은 그가 천서(天書)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아마 보았을 텐데, 문학적으로 보면 어법이나 언어 구조상 그리 규범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의 규범적인 언어는 깊은 내포를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타파했고 아주 규범적인 현대어법으로 말하지 않았다. 게다가 많은 말이 중국의 방언(方言)을 사용했는데, 왜냐하면 규범적인 언어, 규범적인 용어로는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것이 종교용어에 속하는가 하면, 또한 중국 옛적 민간(民間)에서 수련에 대해 인식한 말도 있다. 이리하여 나는 가장 평범하고도 가장 통속적인 언어, 가장 일반적이고도 가장 평이한 언어로 이 대법을 말함으로써, 지식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알 수 있고, 다 수련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그 속에 포함되지 않는 대단히 깊고 깊은 것이다.

여러분은 수련을 알고 있다. 내가 만약 사람들에게 기공을 가르쳐 신체를 단련시키려면, 단지 기공은 어떻게 호흡

을 조절하고 어떻게 마음을 조용히 하는가를 말해 주면 그 만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만약 사람이 높은 층차로 수련하려 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사람을 지도하여 높은 층차로 수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당신들이 학교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신이 대학에 가려면 당신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초가 있어야 한다. 중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중학교에서 공부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손에 고등학교 교과서가 있으며, 최후에 대학에 가면 대학의 과정을 배워야 한다. 당신이 초등학교의 교과서를 가지고 대학에 가도 당신은 여전히 초등학생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대학의 것들을 얻지 못하기 때문인데, 더욱 높은 법을 배우지 못하면 수련하여 올라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당신을 지도하여 높은 층차로 수련하게 하려면 더욱 높은 층차의 이치로써 당신의 수련을 지도해야 한다.

『전법륜』 속에 이렇게 높은 내포가 있다. 그러나 이 책의 표면에서는 오히려 보아내지 못한다. 같은 구절을 당신이 제고한 후 다시 보면 이 구절이 더는 원래의 그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인데, 틀림없이 이리하다. 어떤 책도 이런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것은 수련의 책이 아니고 단지 속인의 이론에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완전히 속인의 이론을 초월한 것으로서 내포가 매우 큰데, 수련이잖은가. 불가(佛家)의 말로 하면, 속인의 이 단계에서 시작하여 수련하는 것을 나 여기에서는 世間法(쓰젠파)수련이라고 하며 또 인체(人體)수련이라고도 한다. 이 단계에서 마땅히 제고해야 할 아주 많은 것들을 모두 완성해야 한다. 과거 인체수련의 책 속에서 다른 것이 비교적 많은데, 모두 매우 어렵풋하게 쓴 이런 것들이다.

이 책이 단지 世間法(쓰젠파) 중의 연공으로 당신을 지도할 수 있을 뿐이라면 당신은 수련하여 삼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책 속에는 반드시 인체수련과 삼계의 각 개 층차 수련의 이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줄곧 삼계 밖의 이치에 이르기까지이다. 수련자는 매 한 층차의 이치로 지도해야만 그 한 층으로 수련될 수 있다. 그렇다면 또한 반드시 더욱 높은 층차의 이치로 당신을 지도해야만 비로소 더욱 높은 층차로 수련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삼계를 초월하는 이치가 있어야만 당신은 비로소 삼계 밖으로 수련할 수 있다. 마치 내가 말한 사람이 책을 읽는 것과 같이, 만약 안에 것처럼 큰 내포가 없다면 당신은 전혀 수련하지 못하는데 바로 이 뜻이다. 내가 오늘 전한 이 법은 다른 기공사가 말한 것과 전혀 다르다. 그러한 기공사들은 단

지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일부의 것들을 가르쳤다. 여기에서 내가 다른 기공사가 높지 않다거나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며 이 뜻이 없다. 나는 누구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현재 이 일은 오로지 나만 하고 있다. 책을 여러분이 보았다시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 중국에도, 전 세계에도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다. 이는 작은 문제가 아니며, 고층차로 사람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렇게 하였다면 매우 거대한 문제와 관련된다.

정법(正法)을 전하기는 매우 어렵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는 그 해에 바로 정법을 전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으며, 석가모니 역시 어쩔 수 없이 열반의 길을 걸었다. 속인사회 중에는 아주 많은 고유 관념, 각종 인류의 세력과 종교 세력이 있으며, 아주 많은 요소 또한 모두 각자의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바른(正) 일면이 있고 부(負)의 일면도 존재하고 있는데, 부(負)의 그 일면이 바로 악세력(惡勢力)이다. 인류사회의 모든 바른(正) 것 속에는 모두 부(負)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을 해치고 그것이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타격할 것이며, 정권(政權)을 이용하고 각종 수단을 이용하여

사람을 억압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법을 전하기는 매우 어렵다. 나쁜 사람이 사법(邪法)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상관하는 사람이 없다.

부처가 중생을 보면 매우 고생스럽다. 예수 또한 당신이 비단 당신의 친구를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의 적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중생에게 자비하기 때문에 세인을 구도한다. 그렇다면 수련인으로서, 개인의 수련 중에서 만일 당신이 일찍이 속인 중에서 당신을 반대했던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당신은 부처가 될 수 없다. 확실히 이런 이치인데, 수련인은 자비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자비라는 것은 바로 속인의 일체 은혜와 원한을 모두 내려놓는다는 것으로서, 속인의 일체에 집착하지 않고, 속인의 명예니 이익이니 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사람의 마음을 내려놓고, 수련 중에서 속인 중의 일체를 모두 담담하게 보는 것이다. 그러면 뛰어나올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한 요구는 좀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전한 이것은 속인 중의 일반적인 평범하고도 평범한 기공이 아니라 진정한 수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또 기공과 떨어질 수 없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기공의 고층이 바로 수련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틀림없다. 그러나 사회상에서 전한 그러한 기공은 모두 수련 중에서 가장 낮

은 층차의 것이며, 신체건강을 위하고 병을 제거하며 몸을 건강히 하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더욱 높은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도 어려운 것이며 누가 일시적인 충동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매우 어렵다고 말한 뜻은, 여러분에게 알려 주는데, 내가 전하기가 매우 어렵고 당신이 얻기도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 여기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인연이 있을 것인데, 대단히 큰 인연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체의 표현에 무슨 특별한 것이 없지 않은가, 평범하고도 평범하게 나는 이 책을 보게 되었고, 평범하고도 평범하게 나는 이 법을 알게 되었으며, 우연히 이 공을 연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혹은 친구가 소개하는 것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속인의 이 사회 형식은 바로 미혹 속에 있으며, 갑자기 한 신선이 날아와서 당신에게 이 법을 배우라고 알려주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면 곧 속인사회의 미혹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 미혹을 타파하면 곧 깨달음이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수련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접촉하는 많은 것들이 모두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우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중국에서 수련생들에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고도 평범하게 이 학습반에 와서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은 아마 지난 몇 세에서, 심지어 십몇 세, 몇십 세에서 모두 이 법을 얻기 위해 고생을 겪었을 것이다. (박수) 단지 당신이 모르고 있을 뿐이다. 어떤 사람은 이 법을 얻기 위해 머리가 떨어진 적도 있다. 수련 중에서 내가 입이 닳도록 선을 권고하며 당신들을 이끄는 것은, 역사상에서 당신들이 누구인지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당신들이 오늘 그를 얻기 위해 아주 많은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내가 이렇게 당신을 가르치지 않으면 당신에게 미안한 일이다.

물론 내가 말한 것이 듣기에 좀 잘 와 닿지 않겠지만, 매우 깊은 것이다. 사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단지 사람 표면의 요만한 현존하는 공간의 이 몇십 년의 일만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죽음으로써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설사 지옥에 떨어지고 18층 지옥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끝에 도달한 것이 아니며, 최악이 큰 생명은 또 더욱 낮은 층을 향해 떨어져 내려가 소멸되고 휘말린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분자로 구성된 이 한 층의 물질신체만을 벗어던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진정한 이 생명 그는 인피(人皮)가 숨을 거두는 순간 신체를 이탈한다. 사람은

사망하기 전에 매우 두렵다고 느끼지만, 사실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데, 조금도 두렵지 않다. 사람의 사유가 존재할 때 매우 두렵다고 느껴지는데, 사람의 사유는 바로 육체 세포로 구성된 사유로서 그것이 일단 멈추게 되면 사람은 갑자기 마치 되살아난 것처럼 느껴지며, 마치 해탈한 것처럼 일종의 흥분된 감각일 뿐만 아니라, 신체가 홀가분해지고 육신의 속박이 없어지며 사상 또한 전부 열린다. 일생 중에서 한 일들이 마치 1분 전에 막 했던 것처럼 눈앞에 생생하게 지나가며 매 한 가지 작은 일까지도 잊지 않게 되는데, 생명의 사상이 모두 해탈되었기 때문이다. 그때서야 사람은 그가 진정 누구인지 알게 되며, 그는 또 일생 중에서 그가 한 일의 좋고 나쁨을 똑똑하게 알게 되는데, 마치 사람이 한잠 자고 다시 깨어난 것과 같다.

물론 내가 말한 이러한 것들은 아마 당신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지만, 사실은 바로 이리하다. 나는 이 방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매우 많은 것을 관찰해 왔다. 특히 가끔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응급처치 하는 것을 보면, 환자가 이미 죽어 그 사람의 元神(웬선)이 신체에서 빠져 나와 가버렸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응급처치를 계속하고 있다. 두 개 시공의 개념이 같지 않기 때문인데, 그 쪽 시간의 빠르고 늦음, 공간구성의 차이는 사람이 공간과는 모두

같지 않다. 일단 인체에서 해탈해 나올 때, 일생 중에 한 일들이 마치 금방 한 일 같고 잠깐 한숨 잔 것과 같다. 부처가 사람을 보는 것 역시 이리한데, 사람은 미혹 속에서 청성(淸醒)하지 못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잠깐인 것이다.

이 법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는데, 어쨌든 당신들은 필경 인연이 있어 얻은 것이다. 내가 생각하건대 기왕 그를 얻은 이상 당신은 바쁜 일이 끝난 후 시간을 내어 이 책을 보도록 하라. 여러분은 좀 많이 봐서, 내가 말한 것처럼 이리한지 아닌지 보도록 하라. 만약 아니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배우지 않아도 된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인식하고 착실하게 볼 수 있다면 내가 다시 뭐라고 할 필요도 없이 당신은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더욱 높은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당신은 줄곧 보게 될 것인데, 그는 속인의 지식을 초월한 것이다. 사람마다 모두 불성이 있으므로 당신이 오로지 볼 수만 있으면 곧 손에서 놓기 아쉬워할 것이며 다시는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법을 말할 때 아마 대륙인의 사유방식으로 말했을 것이다. 이 책을 정리한 것도 역시 이리하다. 비록 미국과 세계의 다른 국가 사람들의 사유방식,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고, 써낸 것의 표면상의 사상구조, 이해 정도가 같지 않으나, 수련 중의 법리의 내포는 같은 것이다.

어떠한 지역, 어떠한 국가, 어떠한 민족도 다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오로지 보기만 하면 모두 같은 것이다. 당신들이 배울 때도 이런 것들을 중시하지 말라. 내가 생각하건대 당신은 모두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데, 이 일을 하는 것 역시 하루 이틀의 준비가 아니고 역사상 매우 길고 먼 연대에 이미 이 일을 하려고 준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속인사회 중에서 매년 어떤 사건이 나타날 때, 그것은 우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모두 천상변화가 조성한 것이다. 인류발전의 역사상 이런 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역사상에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 여러분 알다시피 무수한 고급생명, 불가는 부처가 없는 곳이 없다고 말하는데, 많기로 그야말로 엄청나다. 그뿐만 아니라 형체가 있는 신이 있고 또 형체가 없는 신도 있는데 우주 중에 빼곡히 분포되어 있다. 속인사회에 아주 많은 미시적인 물질이 있는 것을 포함하는데, 사람들이 미량원소라고 부르는 것이든 공기 중의 각종 원소라고 부르는 것이든, 이는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인식하지 못하는 더욱 미시적이고 더욱 미시적인 물질이 있다. 방대한 우주 중에 가득 찬 물질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는 고급생명이다. 이 일체가 모두 사람을 주시하고 있으며 모두 사람을 보고 있고 사람을 관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류사

회에는 우연한 일이 있을 수 없다.

이 대법이 전해져 나온 것 역시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인데, 현재 속인사회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없으나 다른 공간에서는 이리하다. 역사상 진정한 우주의 이치를 사람에게 말해준 사람이 없으며 전혀 있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알다시피 노자, 석가모니, 예수 등등 이러한 사람들은 단지 이 우주의 법리 중에서 그 자신이 인식한 것, 자신이 증오(證悟)한 그 일부분만을 말했다 뿐이며 단지 그들 자신의 인식을 말했다 뿐이다. 그러나 우주의 법은 끝이 없다. 여래를 초과한 부처가 부지기수이며 그들이 인식한 법 역시 더욱 크다. 또 형체가 없는 방대한 생명은 불타(佛陀)의 층차를 훨씬 초과하였으며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 우주는 인류가 종교 중에서 인식한 것처럼 그렇게 작지 않으며 인류의 인식은 바로 인류의 이 사회 내에 국한되어 있다. 사람은 종교의 인식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지만 더욱 높은 신의 눈에는 보잘것없이 작다.

내가 말한 이치는 아마 더욱 클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이는 확실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내가 이 일을 함에 인간의 형식·인간의 언어로, 가장 낮은 수련의 형식으로 가장 큰 일을 했다. 현재 언어와 환경이 같지 않음으로 해서 미국과 기타

지방에서 배우는 사람은 중국대륙의 사람처럼 많지 않다. 중국대륙에서 배우는 사람은 다수가 모두 진정으로 수련하고 있다. 매일 연마하고 수련하는 사람이 천만이 넘으며, 이따금 연마하는 사람, 연마하는 등 마는 등 하는 사람을 모두 합하면 몇 천만이 된다. 나의 이 법을 아는 사람은 중국대륙에 몇 억이 되며 말해 보면 마치 누구나 다 아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이 법이 정치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또한 그로 하여금 정치에 진입하게 할 수 없다. 수련의 것이 일단 정치로 진입하면 곧 사법(邪法)이다. 우리는 단지 민간에서 유전되고 있으며, 정식 신문을 통해서나, 나아가 공개적으로 크게 선전하지 않았다. 모두 수련자들이 좋다고 느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배우도록 알려준 것이다. 한 사람이 좋다고 느끼면 곧 가족들에게도 배우도록 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만약 자신이 그저 그렇다고 느낀다면 가족들에게 배우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가족이 좋다고 느끼면 그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모두 배우게 하는데, 민간에서는 바로 이렇게 전해졌다. 나 역시 가장 낮은 층차에서 시작하여 말했으며 점차 높게 말했다. 이처럼 2년을 말했고, 최후에 진정으로 대법을 말하는데 또 2년을 하여 총 4년이라는 시간으로, 중국에서는 거의 집집마다 알고 있다. 국외에서도 영향이 매우 큰데, 비록 아직 수련을 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두 들은 적이 있다. 동남아에서는 영향이 미국보다 좀 클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보도소를 결성했고法輪大法(파룬따파) 불법(佛法)학회,法輪大法(파룬따파)학회를 결성했는데,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여기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일을 알려주겠다. 현재는 석가모니가 말한 말법시기로서, 안 되는 때인데, 바로 법이 없는 것으로, 석가모니는 그의 법이 말법시기가 되면 사람을 제도할 수 없다고 했다. 많은 화상(和尚) 역시 수련 성취할 수 없다. 그들 역시 어떻게 수련해야 할지 모르고, 경서를 이해하지도 못하며 경서 중의 진정한 함의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련하기가 매우 어렵다. 현재는 배우는 사람이 매우 많은데,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인류사회에 어떠한 상태가 나타나든지 모두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데 이러한 천상의 변화가 없으면 곧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틀림없이 그 이유가 있다.

인류에게는 상생상극(相生相剋)의 이치가 있으므로 바른 것이 나타나면 반드시 사(邪)한 것도 나타난다. 그렇다면 다른 한 방면으로는, 바로 오늘날 사회의 각종 사교(邪教)라든가, 대량의 가짜 기공이라든가, 표면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돈을 위하고 이름을 날리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 많게는 아마 사마(邪魔)가 전생하여 세상을 난잡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석가모니는 그가 법을 전할 때 인류사회가 “다섯 가지 독이 구전한(五毒俱全)”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사실 현재의 사회는 그때보다 더욱 복잡하며 열 가지 악이 구전한(十惡俱全) 것이며 사악한 종교 역시 매우 많다.

여기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우리는 절대 종교가 아니다. 당신이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배우고 싶지 않으면 가는 것으로, 자원(自願)적이다. 예를 들어 억지로 당신에게 배우라 하고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기어코 배워야 하며, 배웠으면 떠나지 못하고 기어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 자체가 바로 샷된 짓을 하는 것이다. 정법이라면 사람 자신이 마음속으로 배우고 싶지 않으면 안 된다. 기어코 다른 사람이 수련하도록 강압한다면 그가 수련할 수 있겠는가? 그는 절대로 진정으로 수련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사람 자신이 진심으로 배우려고 해야만 그는 수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강제로 누구를 여기에 있게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하지 않으며, 배우고 싶으면 배우라. 배우면 나는 곧 당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얼마나 큰 인연이 있든 당신이

배우려고 한다면 나는 당신에 대하여 책임지며, 배우고 싶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일을 하면 된다.

내가 이 법을 전하는 목적은 바로 아름다움과 복음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려는 것이다. 당신들 중에서도 아주 확실하게 많은 사람이 인연이 있는 것으로, 마땅히 이 법을 얻어야 하며 또한 줄곧 이 법을 얻고자 기다렸다. 인류가 특별히 난잡한 이때 전반 사회의 도덕이 모두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겁난(大劫難)이 있다고 말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이러한 대겁난이 현재는 없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 말한다면 이처럼 나빠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무엇 때문에 위험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라. 오늘날 사회의 사람들은 이미 무슨 모양인가. 각종 부패된 현상이 그야말로 너무나 많아 헤아릴 수 없다. 사람이라, 무엇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가?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감에 사람의 도덕 표준과 사람의 규범이 있어야만 비로소 사람이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다. 당신에게 머리가 하나 있고 사지(四肢)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원숭이 역시 사지가 있고, 기타 공간 중에 사람과 비슷한 생물 또한 매우 많으나 그것들 역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행위와 도덕표준이 있고 사

람의 도덕규범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이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이 사람의 도덕규범을 포기하여 사람의 도덕표준이 없고 동물과 같다면, 하늘에서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며 이것을 짐승으로 여긴다. 그때가 되면 인류는 그야말로 두려운 것이다.

무엇 때문에 두려운가?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것은 인류의 공간이며, 지구는 신이 오로지 사람에게 만들어 준 것이지 짐승에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다. 만약 이러하다면, 많은 좋지 않은 사람 그가 현재 난잡한 무엇이든 다 감히 하는 것만 보지 말라. 아마 절멸(絶滅)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많은 선량한 사람, 많은 좋은 사람 역시 따라서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다. 현재 혼자서는 수련할 수 없는데, 내가 이 이치를 사람에게 말해주면 사람도 깨달을 것이며 인류 이는 어찌된 영문인가를 인식하게 되어, 더 미끄러져 내려가 두려운 후과를 조성하기에까지 이르지 않는 것이다.

내가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늘 이런 이치를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나는 또 휴스턴에 가서 회의를 열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단지 여러분을 좀 만나보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했고, 차제에 여러분을 좀 만나보고, 또한 차제에 다시 여러분에게 이 법

이 확실히 매우 진귀(珍貴)함을 알려주고자 생각하여 대가 없이 당신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은 천백 년 동안 사람이 알고 싶어 했지만 오히려 전하지 않은 진귀하기가 비할 바 없는 진법(眞法)이다. 사람은, 진귀한 것을 당신이 추구하는 가운데서 조금만 얻어도, 심지어 오직 한 마디 말이라 하더라도 당신은 대단히 소중히 여겨 일생 동안 잊지 못할 것이다. 만약 더욱 진귀한 것이 왔고, 더구나 내가 그를 전부 다 당신에게 받쳐주었을 때에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쉽게 얻게 되었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아마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흔히 쉽게 얻은 것을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또한 별다른 방법이 없다. 나는 개개인들이 도처에 가서 나를 찾게 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오로지 이 일체를 모두 당신들에게 주어 당신들에게 알게 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며 재차 인연을 잇게 하는데, 오로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소중히 여기는가 여기지 않는가는 당신들 개인의 일로서, 당신들은 앞서 인연이 있었다. 사람은 분석능력이 있으니, 당신은 이 이치가 좋은지 좋지 않은지 좀 보라. 내가 생각하기엔 사람마다 모두 불성이 있으니 당신 자신이 잘 깨닫도록 하라. (박수)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은 매우 멀리서 온 것 같은데, 여러

분도 떠나려 하지 않는다.

제자: 사부님, 사진을 찍어도 됩니까.

사부: 사진을 찍어도 된다.

제자: 질문을 해도 됩니까?

사부: 이렇게 하자. 우린 시간을 길게 할 수 없으니, 나는 여러분에게 반시간을 더 주겠다. 내가 여러분의 일부 문제에 대해 주겠다. 이에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겠다 — 대표성이 있고 확실히 당신을 곤혹시키는 것이면 제기하라. 당신이 책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은 제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라, 만약 매 사람마다 모두 문제를 제기하면 두 시간이라도 다 대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겠는가?

제자: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사부: 된다, 된다.

제자: 저는 사부님의 책을 모두 보았고 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매우 많은 친구나 혹은 친척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모두들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전

에 불교를 믿었고, 물론 기독교를 배우는 친구들 역시 많은데, 생각하는 것은, 만약 지금 파룬궁을 배운다면, 어떤 사람은 이전에 주문을 외우기 좋아했고, 교회에 가기를 좋아했는데 이런 것을 또 할 수 있습니까?

사부: 좋다, 내가 말하겠다. 당신이 말한 뜻은 바로 다른 종교를 신앙하면 이 파룬궁을 배울 수 있는가 없는가, 교란이 있는가, 없는가이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내가 책 속에서 이미 대답했다. 그럼 내가 다시 말하겠다.

부처 수련이란 속인이 이해하는 어떤 학문이 아니다. 부처 수련은 매우 엄숙한 문제이다. 세상의 어떤 일도 이 일보다 엄숙하지 못하며 또한 이 일보다 수승(殊勝)하지 못하다. 수련은 법문(法門)을 구분하는 것으로, 불교 중에서도 불이법문(不二法門)을 말한다. 방금 나는 불교가 말법 시기에 이르러 수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무엇 때문에 수련하기가 쉽지 않은가? 지금의 사람은 이미 경서 중의 함의를 이해하지 못한다. 더욱이 현대의 불학사전(佛學詞典), 그것이 해석한 것과 석가모니가 당시에 했던 말은 전혀 같은 뜻이 아니다. 예를 들면 석가모니부처가 말한 불이법문(不二法門)은 수련 중에서 섞어서 수련할 수 없으며 동시에 두 가지를 수련하든가 혹은 여러 가지 것을 수련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 것이었다. 예컨대 당신이 선종(禪

宗)을 배우는 사람이면 당신은 정토(淨土)를 배워서 안 되고, 당신이 정토를 배우는 사람이면 당신은 천태종(天台宗), 화엄종(華嚴宗)을 배워서 안 되며, 당신이 화엄종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천태종을 배워도 안 되고 선종을 배워도 안 되며 밀종을 배워도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가? 현재의 사람은 알지 못한다. 오로지 부처라면 모시고, 오로지 부처라면 그가 어느 문(門)이든 함께 모시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화상(和尚)들이 수련 성취할 수 없게 만든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사실 매 한 부처는 모두 자신의 천국을 주지(主持)하고 있으며 매 한 천국에는 여래가 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약사불은 그의 유리세계를 주지하며, 화엄세계에는 화엄여래가 있고, 연화세계에는 연화여래가 있으며, 극락세계에는 아미타불여래가 있는 등등이다. 매 한 여래불은 모두 자신의 한 세트 수련방법이 있으며 불리(佛理)의 근간은 모두 우주법리 중에서 참오(參悟)해 낸 것이지만, 매 한 여래의 인식과 수련방법은 같지 않다.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알다시피 부처의 능력은 제각기 다르며 매 한 부처가 모두 다른데, 이 부처는 이러한 재간이 있고 저 부처에게는 저러한 재간이 있다. 모두 한 경지 중에 있지만 능력은 모두 같지 않다. 마치 여러분이 대학에 다니는 것처럼 당신은 대학생이고 그 역시

대학생이다. 당신은 이과(理科)를 배우는 사람이고 그는 문과(文科)를 배우는 사람이며, 그는 농학을 배우는 사람이고 그는 천문학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모두 같지 않다. 모두 대학생이지만 장악한 것과 배운 지식은 같지 않다. 나는 매우 간단하게 이런 예를 들었다.

사람 당신이 어떤 세계로 가고자 하면, 과거에 불교에서는 어디로 가겠다고 소원을 빌라고 한다. 나는 정토세계로 가려고 하며 아미타불의 그곳으로 수련하여 그의 불타중생이 되겠다거나 혹은 보살로 수련 성취하거나 나한으로 수련 성취하겠다고 말한다. 그럼 당신이 소원을 빈 후 당신은 곧 그의 이 한 문에서 수련하고 아미타불의 경(經)만 보아야 하며 아미타불만 외워야 한다. 다른 어떤 경(經)도 보아서 안 된다. 이것을 불이법문 수련이라고 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화엄세계로 가려 하면 그럼 당신은 『화엄경』만 봐야 하고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모두 불리(佛理)로서 사람에 대하여 모두 좋은 점이 있다고 느낀다. 이는 사람이 생각한 것이며 주의하지 않으면 곧 난잡해진다. 경서 속에는 가장 낮은 층차에서 고층차에 이르기까지 수련인의 모든 이치가 포함되어 있다. 섞어서 수련하면 좋은 점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일 뿐이다.

이 인류 사회는 현재 붕괴되어 사람을 제도하는 모든 바

른 신(正神)들은 모두 사람을 상관하지 않는다. 하여튼 그들은 현재의 사람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모두 가지려고 하지 않고 제도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방금 전에 한마디 말을 했다. 나는 내가 이 법을 전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말했다. 아주 많은 신불(神佛)들이 모두 가로막고 나서서 전하지 말라고 했다. 그들은 지금의 사람은 더는 제도할 수 없고 또한 더는 남겨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들을 사람은 모르며 사람은 여전히 아주 잘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사람은 현대인과 과거 사람의 도덕적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사람은 또한 천지의 차이가 얼마나 크며, 신불(神佛)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하늘은 얼마나 순정(純淨)하며, 부처는 얼마나 수승(殊勝)하고, 얼마나 위대한가를 모른다!

사람과 천인(天人)의 차이는 지극히 크다. 인간세상의 하늘은 아주 맑은데 그것은 사람이 여기의 물질로 구성된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 고층 공간에 서서 인류를 본다면, 당신은 인류사회에 검은 파도가 넘실거리고 업력이 극대하며 아주 더러운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불(神佛)의 사람에 대한 견해는 사람이 상상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구원함은 신불이 사람에게 자비한 것이지, 당신이 부처가 좋다고 말하여 부처가 당

신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며 또한 당신이 무엇을 얻고자 하여 신불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다. 사실 신(神)이든 부처이든, 그들은 수련에 대하여 형식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 종교를 아무리 크게 할지라도 수련과는 다르다. 나 역시 사람을 위해 공(功)을 전하는 것이지, 결코 교(教)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신불(神佛)은 종교형식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로지 사람만 인정한다.

사람들은 늘 내가 믿는 교는 어떠한가하게 좋다고 말하는데, 마치 그가 부처를 수호하는 것 같고, 마치 그가 예수를 수호하고, 천주를 수호하는 것 같다. 이런 일이 아니다. 그가 종교 자체에 열심일수록 더욱 집착이며, 그의 마음이 강할수록 신과 더욱 멀리 떨어진다. 아울러 종교는 사람이 하는 수련형식이라, 교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사람이 완벽하게 닦았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이 이쪽으로 마음을 쓰면 부처와 신은 아주 괴로워한다. 부처는 세간의 형식을 보지 않는 것으로, 귀의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속인의 마음인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는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는 당신이 진정으로 닦는가, 닦지 않는가를 본다. 당신은 귀의하지도 않고 세례를 받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향을 피우지 않고 염불도 않지만 당신이 신불(神佛)의 요구에 따라 하며 정진하여 착실히 수련하면, 그가 보고 정말로

기빠하며, 당신이 구할 필요 없이 그는 시시각각 모두 당신을 보호할 것이고 당신을 돌볼 것이며 당신의 수련을 도울 것이다. 이런 이치가 아닌가? (박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불교의 책을 내려놓을 수 없고, 『성경』을 내려놓을 수 없으며, 주문을 외는 것을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한다.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은 종교이지, 부처를 내려놓을 수 없음이 아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고 살펴보라. 지금 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지 않은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가? 자신이 자신의 마음의 근원을 파내어 그 마음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보아야 한다. 어떤 일들은 그 표면을 보면 안 되는데, 자신을 진정으로 닦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신불(神佛)을 믿는 것이다. 부처도 이렇게 본다. 그들도 종교를 어떻게 잘 해나가는가를 보지 않는다. 여러분은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수련 성취하였음을 알고 있는데 그가 반드시 종교 중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며, 많은 대덕지사(大德之士)들이 종교 중에서 수련하지 않았다. 사람이 줄곧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하고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견정하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할수록 더 잘한다면 부처는 그를 책임질 것이며 그는 원만을 이룰 수 있다.

내가 말한 이치는, 말하고 또 말해도 바로 당신으로 하여금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며, 더 좋은 사람, 속인을 초월하는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했다면 당신은 바로 속인을 초월한 사람이고, 더 초월하였다면 당신은 바로 더욱 높은 경지의 생명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지 않고 여전히 지상에 있을 수 있겠는가? 사람은 사(私)적인 것을 위한 것이며, 강함을 다투고, 명을 다투고 이익을 다룬다. 지상의 사람은 이미 당신과 같지 않다. 바로 이러한 이치이다. 만약 당신이 그들과 이렇게 말한다면, 어느 종교든지 신이 일단 포기하면 바로 속인의 사회 형식이며, 사회의 일로서, 진정한 수련에 대하여 실제상 무슨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는 수련의 엄숙성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전일(專一)해야 비로소 진정한 수련이다. 그가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것으로, 그들에게 비록 영향주지 않지만 수련의 엄숙성이 있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그에게 영향주지 않는데, 책을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라. (박수)

제자: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연습하라고 가르쳐 주신 5장 공법 외에 저는 한 세트의 수인을 발견하였는데, 사부님께서 하신 이 수인(手印)입니다.

사부: 나는 먼저 여러분에게 수인(手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 수인은 마치 부처의 언어와 같은, 한 가지 표현 방식인데, 부처가 무언가를 표현할 때 언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으면 수인을 한다. 부처와 부처 사이에는 사유전감(思維傳感)도 사용한다. 무릇 당신이 나의 범신을 보거나 혹은 당신이 부처와 보살을 꿈에서 볼 때, 당신에게 말할 때 입을 움직이지 않아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이 사유전감을 사용한 것이다. 현대 언어로 말하자면 음성을 지닌 입체전감(立體傳感)이다. 많은 보살, 나한에게 설법할 때 역시 늘 수인의 방식을 사용한다. 이것은 사람의 수화가 아니고, 그것보다 성결하고 위력이 강대하다. 바로 그가 부처의 언어이기 때문에 수인을 하면 에너지가 있고 위력이 있다. 부처 이하의 중생에 대해 말하면 부처가 표현한 것은 바로 법이다. 그러나 수인은 말하는 것과 같으며 언어는 이렇게 조합하여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조합하여 말할 수 있으며, 한 개 문제를 또 부동한 각도에 서서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규범이 없다. 그러나 또한 구체적으로 연공할 때 사용하는 정인(定印)이 있다. 다시 말해서 손이 結印(제인)할 때 움직이지 않는 자세, 이것을 정인(定印)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연화수인(蓮花手印)을 하거나 우리가 연공 중에 정인을 하는 것 모

두가 정인(定印)이다. 그렇다면 운동 중의 수인은 고정적인 수인과 다르다. 내가 연공할 때 테이프에서 한 수인은 여러분들이 연공하기 전에 내가 당신들의 명백한 일면에게 말하여 보인 것이며 기타 공간의 증생에게 보인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배울 필요가 없다. 당신들이 장래에 부처로 수련되면 모두 할 수 있다. (박수)

제자: 리(李) 사부님, 오늘 우리 매 사람마다 모두法輪(파륜)을 넣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수)

사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당신이 오로지 진심으로 수련하면 여기에서든지 아니면 당신 스스로 책을 보든지 모두 얻을 수 있다. 내가 또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부디 이 책을 소중히 여기라. 당신이 지금은 인식할 수 없겠지만, 이 책 속에서 말한 것은 불리(佛理)이다. 수련 속의 매 한 층차가 이 책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사실 당신의 수련을 지도하는 것은 불법(佛法)이다. 당신이 수련하는 중에 부처, 신이 당신을 도울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 그 하늘의 매 층차에 무엇이 살고 있는가? 못 신과 부처가 아닌가? 더욱 높은 부처, 더더욱 높은 부처, 더욱 더욱 더욱 높은 부처가 아닌가?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그 책의 매 한 개 글자는 모두 무수한 부처의

층층 겹겹이고, 최후에는 나의 법신이다. 또한 부동한 층차에 역시法輪(파룬)이 펼쳐 보일 수 있다. 이 책을 들면, 왜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하면 편안하게 느껴지며, 보기만 하면 소업(消業)할 수 있고, 보기만 하면 병이 낫는가? 물론 수련 중에 단번에 업을 전부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당신에게 그렇게 많이 완전히 제거해 줄 수 없다. 사상이 승화되어야 비로소 일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수련 속에서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의 위력은 아주 크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그럼 또 내가 직접法輪(파룬)을 넣어줄 필요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배우기만 하면, 수련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얻을 수 있다. 대법은 전 세계에서 모두 전해지고 있다. 바로 내가 전 세계의 매 한 사람과 만날 수 없기 때문이며, 중국에서 수업을 받은 수련생만이 나를 만난 적이 있고 기타 더 많은 수련생들은 나를 만나지 못했다. 수련 중에法輪(파룬)을 포함해서 내가 준 것이 없으면 되겠는가? 안 된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능력을 이 책 속에 넣었다. 오로지 수련하는 사람이 있기만 하면, 책을 보기만 하면 수련 중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

현재 많은 수련생 그들도 곳곳에서 나를 찾고 있지만 나는 그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 데는 원인이

있다. 바로 내가 그들로 하여금 착실하고도 착실하게 그 곳에서 수련하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수련생은 나를 만난 후 마음이 쉽게 들뜨는데, 그의 수련을 교란하게 된다. 나는 그로 하여금 마음을 조용히 하고 수련하게 하려고 한다. 내가 단지 법만 전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또 법을 얻어야 하며, 당신에게 시간을 주어 읽고 착실히 수련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되도록 수련생과 아주 적게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만일 내가 전한 법이 당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다면, 내가 헛되게 한 것과 같다. 때문에 당신이 책을 보기만 하면, 당신이 진수(眞修)하기만 하면 당신은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이 한 문(門) 중에서 모두 얻을 수 있는데, 틀림없이 이리하다. (박수)

천백 년 동안 석가모니부처의 제자들 역시 사부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도 경서에 따라 수련하고 있지 않는가? 진정으로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그 법은 당신에게 필요한 일체를 줄 수 있다. 내가 당신에게法輪(파륜)을 줄 때도 일반적으로 당신이 보지 못하게 한다. 마치 당신에게 무엇을 줌 주어야 비로소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집착을 제거해야 한다.

제자: 리(李)사부님, 당신께서는 기공에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분간할 수 있습니까?

사부: 기공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것으로, 속인은 분간하기가 아주 어려운데, 왜냐하면 현재 사람이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표준이 변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수련하면 천천히 모두 분간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라. 그가 말한 것이 올바른 이치가 아니거나 혹은 겉으로는 남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지만 그는 뺏속 깊이 돈을 위해 사람을 기만한다. 불법수련은 아주 엄숙한 것으로서 절대로 돈과 한테 뒤섞을 수 없다. (박수) 세간에서 어떠한 것으로도 사람은 모두 돈을 벌 수 있지만 유독 불법만은 절대로 안 된다. 또 일부 사람들은 이름을 날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명(名)·이(利)는 속인이 영원토록 집착하는 것이다. 이런 가짜 기공사, 그는 사람을 사로(邪路)로 이끌 것이며 사람을 제도하기는커녕 사람을 망가뜨린다.

사실 그들의 죄는 작지 않다. 만약 근기가 아주 높고 법을 얻을 사람이 그에 의해 망가졌다면 생각해 보라. 얼마나 큰 죄인가. 돈과 재물을 위해 이렇게 나쁜 일을 하였으니, 이 죄는 “돈을 벌려고 왔다”는 것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 기공고조가 나타났을 때, 그러한 기공사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대가 없이 기공을 보급했다. 바로 지

금 나타난 이런 가짜들이 아주 심하게 난잡하다. 다만 또 아주 많은 기공사들은 시작할 때는 아주 좋았는데, 그들은 모두 副元神(푸웬션) 수련이었으며 그 자신의 사람 이쪽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탓으로 시간이 길어지면 명리심이 일어날 것이다. 나오지 않을 때는 사부가 상관하고 그의 副元神(푸웬션)도 그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일단 나와서 일을 할 때면 사람의 일면은 세간의 명리에 쉽게 유혹 당한다. 그렇다면 그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만 하면 그는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는 공이 없으며 기공사 본인도 병을 얻을 수 있다.

제자: 사부님께 여쭙겠는데 만약 우리 수련생이 월만을 이루면 어디로 갑니까?

사부: 나에게서는 法輪世界(파룬쓰제)가 있다. 천국세계는 무척 많은데, 나도 여러분에게 말해 줄 수 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속인의 지식수준이 아주 높은 것 같으므로 나는 우주의 개념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하겠다.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한 개 공간인데, 또한 불교도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부처가 세상에 있을 때 우주의 근본 이치 중에서 허다한 진리를 증오(證悟)해 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를 기록하지 않았고 경서 중에도 수록하지 않았으며 세인들에게 남겨두지 않았다. 석가가 세상에 있지 않은 지 500년 이후에 후세 사람들이 비로소 이러한 경서를 정리해 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500년 이후에 석가모니가 그 당시 무엇을 말했는지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기가 아주 어렵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남겨진 경서인데 사실 석가모니부처의 원래 말과 이미 판이하게 다르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불법이치가 있었기에 사람으로 하여금 수련할 수 있게 했다. 이것 역시 과거에 사람으로 하여금 마땅히 알게끔 한 그런 것들이며, 이 공간의 중생도 마땅히 이만큼만 알아야 했다.

우주는 불교경서 중에서 펼쳐 보인 것처럼 그렇게 작지 않고 또한 과거의 수련하는 도인(道人)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석가모니가 그 당시 말한 것은 나한법(羅漢法)이다. 이 나한법은 과위 중에서 가장 낮은 과위이다. 그가 물론 더 높은 것을 말한 적이 있지만 유전되어 내려온 것은 아주 적었다. 석가모니부처는 그 당시 또 한 마디 말을 했다. 여래부처는 갠지스 강의 모래알 숫자처럼 많으며, 매 한 여래부처가 한 개 천국을 주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가 말한 이 범위는 사람에게 대하여 말할 때 이미 아주 컸다.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분자는 미시적인 입자로 구성된 것이고 사람은 분자와 별(星球) 사이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실 은하(銀河) 역시 우주 중의 한 개 입자이다. 무척 많은 은하계로 구성된 범위 역시 변두리가 있고 꺾데기가 있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인류가 말하는 우주이다. 사실 이것은 단지 작은 우주에 불과하다. 이 작은 우주 밖으로 벗어나면 무엇인가? 현대의 과학은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하며 사람은 이런 개념조차도 없다. 우주는 대폭발로 형성된 것이 전혀 아니다.

이 소우주에서 아주 멀고 먼 곳에 또 소우주와 같은 천체가 있다. 신과 부처는 층차가 있으며 낮은 층차 중의 부처는 높은 층차를 볼 수 없다. 이는 더 높은 신과 부처의 눈에 여전히 아주 작고 아주 작은 범위이다. 사람이 탐색하려 해도 불가능하다. 사람은 광속(光速)을 알고 있지만 빛의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아니다. 빛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으로, 시간과 공간 역시 우주 중의 물질로 구성된 것이다. 아울러 공간 중의 일체는, 빛을 포함하여 역시 물질인 것으로서, 각종 물질은 모두 에너지가 있다. 여러분은 모두 분자 이 한 층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공기, 나무, 물, 금속, 토석(土石) 일체가 모두 분자 이 층의 입자로 구성되었다. 이 층의 공간 속에서 사람이 분자에 방사성 에너지가 있음을 느끼지 못함은, 사람 자체 역시 분자로 구성되었기 때문인데, 사실 분자 역시 에너지가 있는 것이다. 인류

공간의 빛 역시 이 한 층의 입자를 표면으로 한 것이다. 나는 부동(不同)한 공간에는 모두 부동한 공간의 빛이 있고, 부동한 공간의 빛을 구성하는 물질도 부동한 것이라고 말한다. 시간과 공간이 부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빛의 속도도 사실 같지 않은 것이다. 그럼 우리가 아래를 향하여 볼 때, 원자는 에너지가 있고 원자핵의 에너지는 더 크고, 중성자는 더 크며, 전자, 쿼크, 중성미자는 한 층이 한 층보다 방사성이 더 강하고 에너지가 더 크다. 입자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에너지와 방사성이 더 크며, 본원 물질에 이르러 그 힘의 크기는 사람으로서는 그야말로 형용할 방법이 없다. 물론 사람으로서는 영원히 본원물질을 인식할 수 없다.

내가 방금 전에 말한 이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이 우주는 사람이 인식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천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우주 중에는 얼마나 많은 크기가 같지 않은 우주가 있는가? 이는 무량한 숫자이다. 하지만 단지 한 개 작은 우주 체계 속에서 형용하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대략 소우주 3천 개가 조금 더 큰 제2층 우주 하나를 구성하고, 또 이렇게 많은 제2층 우주가 제3층 우주를 구성한다. 이렇게 유추(類推)하면 사람으로 말할 때 무궁무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하늘이 얼마나 큰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인류는 최종의 천체가 얼마나

큰지 영원히 추측할 수 없으며 여래불도 추측해 낼 수 없다. 그것은 무척이나 커서 인류의 현존하는 지식으로 인식한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내가 방금 전에 한 말을 생각해 보라. 인류가 현재 장악한 요만한 과학지식이 다 무엇인가? ‘소아과(小兒科)’이다. 아울러 현재의 실증과학은 사람을 완전히 비뚤게 이끌었고 실증과학은 수많은 가상을 조성했다. 이 점을 여러분은 여전히 인식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예를 하나 들겠다. 내가 방금 전에 말한 우주처럼, 지금의 실증과학은 대폭발로 형성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당신에게 가상을 만들어주지 않았는가?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여기고 있다. 실증과학은 사람이 진화되어 왔다고 여긴다. 진화론은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어 왔다고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가 당신을 그릇된 길로 끌고 간 것이 아닌가? 사람의 물질에 대한 인식도 실제상 이런 것이 아니고, 기본 인식마저 잘못된 것이다. 아울러 인류는 가상 속에서 완전히 이런 인식에 의해 붕괴되었고 갈수록 붕괴되어 사람은 자신을 거의 한 점의 공간마저 없도록 붕괴했다. 또한 이 우주의 진상은 오히려 그것에 의해 완전히 뒤덮여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라. 누가 만약 우주의 진상을 말한다면, 과학이란 것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

가? 이 과학은 이미 이러한 환경을 형성했고 그것은 기필코 저촉(抵觸)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때문에 더 높은 것을 말하면 그것은 당신이 미신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런 이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고정관념이 형성되었다. 만약 전인(前人)이 내린 이런 법칙·학설, 예를 들어 말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과학의 정상이라고 여긴다. 후인(後人)들은 모두 여기서 인식하며 누가 과감하게 좀 더 높이 생각하고 연구 중에서 조금 초월하면 곧 어떤 사람이 “당신이 그래 아인슈타인보다 대단한가.”라고 할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현대 실증과학의 물질로 형성된 환경이 사람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성취가 있는 과학자, 당신이 전인의 인식을 초월했을 때, 당신은 그의 범위 내에서 전인의 인식은 이치이고 맞지만 당신이 그것을 초월할 때 당신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며 오히려 또 사람을 제한할 수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진정으로 성취가 있고 사상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과감하게 돌파하고, 전인의 틀을 돌파해야만 당신은 진정으로 성취가 있는 것이다. (박수)

제자: 우리가 사부님의 경문을 시간 순서대로 편집해도

됩니까?

사부: 괜찮다. 이 경문이란 단어도 무슨 특수한 함의가 없다. 경서(經書), 경문(經文)의 본뜻을 말하자면 바로 사람이 늘 배우는 글이고 늘 보는 글로서, 늘 참조하기에 경(經)이라고 부른다.

제자: 가부좌 중에 갑자기 표범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표범은 무엇입니까?

사부: 당신이 연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을 교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도 당신을 다치게 하지 못한다. (박수) 왜냐하면 내가 기왕 이 일을 했으므로, 나는 수련자를 위해서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여러분은 안심하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배우고 있어도 문제가 나타난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다. 당신 자신은 반드시 자신을 연공인으로 간주해야 하며 당신 자신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두려움도 제거해야 할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제자: 리(李)사부님, 『法輪功(파룬궁)』 책에서 제1장 공법은 세 번을 하라고 해서 우리는 모두 세 번을 합니다. 충관(沖灌)과 ‘법륜주천법(法輪周天法)’은 왜 세 번 하지

않습니까?

사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이 공법은 대단히 자유롭다. 만약 당신이 시간이 있으면 많이 연마하고 만약 시간이 없으면 적게 연마해도 된다. 만약 오늘 시간이 없다면 다만 한 장의 공법만 연마해도 되며,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심지어 당신이 동작 하나만 할 수 있으면 당신은 동작 하나를 하고, 당신이 시간이 많을 때 당신은 몇 번 더 연마하라. 그러나 매번 아홉 번째 이르렀을 때 멈추고 연이어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비교적 좋다. 나 이 법(法)의 수련은 다른 수련과 다른데, 다른 수련은 당신이 그것을 연마할 때에만 연공하고 있는 것이고, 연마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멈추고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24시간 모두 사람을 연마하고 있으며, 이는 법이 사람을 연마하는 것이다. 당신이 연공해서는 뭘 하는가?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넣어준 그런 기제(機制)를 강화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나는 기(機)에 따라 움직인다(隨機而行)고 하는가. 바로 당신이 연공할 때 손 부위에 에너지가 클 것인데 수련자는 이 기(機)를 가지(加持)하고 있는 것으로, 기(機)가 가지(加持)될수록 기제(機制)의 힘이 커져서 기제가 자동적으로 당신을 이끌어 연공시킨다.

제자: 법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책만 보는 것인지, 아니면 베끼면서 읽는 것인지, 아니면 책을 베끼는 것이지요?

사부: 중국 대륙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외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베끼고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외우지 못하면 늘 보는데, 어느 종류의 방법이든 다 된다. 외운 사람은 그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는 단번에 법이 생각날 것이므로 그는 쉽사리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 책을 베끼는 것도 인식을 깊이 강화하는 것이다. 늘 보는 것도 인식을 깊이 하고 부단히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제자: 사부님, 우리는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으며,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일반적인 것 같다고 느낍니다. 때문에 저는 사부님께서 모두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한 것은 대륙의 정황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사부님, 안녕하십니까(師父您好).” 네 글자로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부처 공부를 하는 사람은 모두 사부님이 위에 있다고 느끼며, 선생님이 아닐 것입니다.

사부: 고맙다. 사실 뭐라고 불러도 다 된다. 선생님, 사부, 이름을 불러도 다 괜찮다.

나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를 마음대로 부르라고 했는가? 왜냐하면 현재의 사회는 그런 바르지 못한 것에 의해 너무나도 심하게 난잡해졌다. 자신을 부처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으며, 생불(活佛)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대사(大師)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역시 그 명리(名利)를 위해서가 아닌가? 내가 말한다면 여러분은 마음대로 불러도 좋다.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슨 안 좋을 것이 없다. 나는 이런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며 이런 것을 구하지도 않는다. 물론 수련생으로서 당신이 선생님이 대해서 어떤 경의가 있고, 선생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제도하고 있고 우리를 도와 준다고 생각하여 어떻게 부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당신들의 일이다. 나는 선생님이란 말을 들어도 괜찮다.

제자: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사부님께서 돈을 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일은 저로 하여금 이는 진짜 부처님(眞佛)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물론 사부님께서 책 속에서 부처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 원래 우리가 배운 불교에서도 이처럼 진정하게 가르쳐주는 명사(明師)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어디에 가서 돈을 받

지도 않고 또한 당신을 이끌어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겠습니까? 또 당신을 대신하여 소업해 주는데, 당신들은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까. 바로 제가 느끼기에 우리 사부님은 도사(導師)로서 진정하게 우리의 수행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므로, 저는 과거에 배운 것을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여기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두 부처 공부를 하고 있고, 거사도 아주 많으며, 다른 것을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건대 오늘 이후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명사(明師)를 우리의 진정한 수행을 지도하는 사부님으로 삼아야 하며, 더는 다른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물론 제가 감히 다른 사람을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저는 오늘 사부님께서 오셨으니 제가 이런 말들을 마치 몇 년 이래 오늘에 와서 고백할 수 있기를 희망해 온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 고승차로 수련하고 싶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밀종(密宗)을 배운 적이 있으며 또 일부 기공을 배운 적이 있고 대사(大師)까지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신 후에도 저는 제가 아직도 저인 것을 느꼈고, 저는 조금도 무슨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부님의 법을 들은 후, ‘사부님의 법은 불법(佛法)이다.’라고 생각했습니

다. 저는 첫 날에 비디오설법을 들었는데, 사부님께서 오로지 당신이 진정하게 수련만 하면 하고 말씀하시자, 저는 바로 텔레비전에 대고 저는 진정하게 수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부님께서 미국에 오시기를 희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사부님이 오시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부님께서 다시 명시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며, 샌프란시스코 현지에서 부처수련을 하는 데에서 마땅히 어느 방면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것은 저의 간청입니다. (박수)

부처 공부를 하는 거사가 아주 많지만 그러한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데 우리도 그를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를 저는 직접 사부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그는 원래 부처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역시 경을 읽고 부처를 몇 년 간 모셨습니다. 그는 그가 (이전의 불경을) 염불하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파룬궁을 읽으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오늘 사부님께서 여기에 계시고, 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부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사부: 좋다, 사실 말법시기에 진정한 부처는 모두 세간의 일을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기를 얻은 많은 동물들이

불상에 올라가 사람에게 모시게 하고 사람에게 공양하게 하며 사람에게 작은 선심을 줌 쓰는데, 일단 사람이 진정하게 자신을 수련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교란해 온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일부 사람들은 무슨 공을 연마하면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사실 바로 그 족제비가 내보낸 냄새이다. 두 공간의 냄새가 다르므로 이쪽에서는 향기롭지만 저쪽에서는 구린내가 난다. 인간 세상이 반대로 된 이치이기 때문에 일체가 모두 반대로 되는 것이다. 사람이 맡은 것은 향기로운 냄새지만, 실제상 부처는 구린내라고 여긴다.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대법을 배우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교란하여 그런 냄새를 내보낸 것이다.

내가 생각하건대 우리 샌프란시스코 수련생들은 샌프란시스코만 보지 말고 전 미국을 향해야 한다. 어떻게 수련하는가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전히 이런 형식을 유지해야 한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것 역시 후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남겨두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절에 가서 했을 것이고 나는 출가했을 것이다. 출가하면 안 된다. 종교는 이미 더욱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얻게 할 수 없으므로 내가 이런 형식을 취하여 사람에게 수련하게 했으니 당신들도 이렇게 유지해야 한다. 나 이 문에 들어서면 규칙과 계율이 다 나온다는 것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사

람이 배우려고 하면 인식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좋다는 것을 알면 곧 책을 볼 것이다. 그가 인식을 제고하면 그 자신이 자동적이고도 자각적으로 더욱 잘할 것이다. 이 속에서 종교의 거사는 그래도 비교적 해결하기가 수월하다. 화상(和尚)이야말로 가장 불쌍하다. 종교 중의 이런 형식이 그들을 완전히 가로막았다. 그들은 법을 접촉할 수 없으며 또한 접촉할 용기도 없다.

제자: 사부님,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오늘 사부님께서 인연이 있으므로 여기에 오셔서 모두와 만났습니다. 사부님께서 모두와 인연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사부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수련생들의 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모두 공성원만을 이룰 수 있습니까?

사부: 여기에 앉은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당신이 오직 수련할 수만 있으면, 내가 당신에게 배치한 이 길은 최후에 모두 원만이다. (박수) 여러분들은 너무 일찍 기뻐하지 말라. 수련은 사부가 문으로 이끌어 들이는 것이지만 그 수련은 여전히 개인에게 달렸다. 내가 당신에게 배치해 주고 내가 당신을 보호하고 가지(加持)해 주며, 매 한 층차마다 모두 당신에

계 공의 승화를 연화해 주지만, 마음을 수련할 때에는 자신에 의거해야 한다. 이 마음이 번거로움에 부딪혔을 때, 관(關)을 넘길 때, 당신이 참을 수 있는가 없는가, 넘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것은 완전히 자신에게 달렸다. 물론 당신이 정말로 넘어가지 못할 때에는 또 당신을 점화(點化)해 줄 수 있는데, 그 때에 이르러 당신의 사상이 극단으로 뚫고 들어가서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점화해 주어도 깨닫지 못할까 봐 걱정이다. 그러므로 하기가 아주 어렵다.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데, 당신들이 관(關)을 넘기지 못할 때,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나의 법신이 귀에 거슬리는 말로 당신을 자극하고 있으며 당신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관을 넘긴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데 관을 넘긴 후에 뒤돌아보면 그 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 모른다. 자신이 정말로 지나왔을 때, 그 심성도 제고되어 올라오며 업도 제거될 것인데, 틀림없이 이러하다. 만약 이 번거로움을 다른 사람이 조성했다면 다른 사람은 당신에게 德(덕)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고생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오직 사람만이 고생을 하면 나쁜 일이고 고생을 하면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긴다. 수련인으로서, 고생을 하면 소업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층차도

제고할 수 있으며, 원만을 이룰 수 있다. 그럼 당신이 말해보라. 나는 사람 속에서 행복하려고 하고, 나는 고생을 조금도 하고 싶지 않으며 편안하고도 편안하게 연공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당신은 업을 제거할 수도 없고, 心性(썩씹)도 제고할 수 없으며, 원만을 이룰 수도 없는데, 바로 이런 이치이다.

이렇게 말하고 법리도 명백하게 말했지만, 고생을 겪을 때는 여전히 참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과거에 나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하나 알려주었다. 부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복이 있는가? 정말로 복(福)과 수(壽)가 모두 구비되어 있다. 바로 그가 얼마나 큰 고생을 했으면 그만큼 큰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것처럼 큰 고생을 하라고 한다면, 오늘 날 당신들은 누구도 원만을 이룰 수 없다. 실질상 오직 당신들이 정말로 수련해 나아갈 수 있다면 더욱 많은 업력을 사부가 당신들을 도와 없애줄 것이다. 여전히 내가 방금 전에 말한 그 한 마디 말이다. 이 법을 얻기 위해서 아마 당신들은 몇 생 몇 세에 모두 고생을 겪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법을 얻으러 온 것으로, 일찍이 고생을 겪었다. 당신들은 지금 어디가 부족한가? 바로 당신들의 그 속인의 마음을 제거하는 데 부족하다. 내가 말하는 고생은 역시 주

로 마음을 제거하는 고생을 가리키는 것이다.

베이징(北京)국제교류회설법

李洪志

1996년 11월 2일 베이징

베이징(北京)국제교류회설법

李洪志

1996년 11월 2일 베이징

나는 여러분의 심정을 알고 있으며, 나 역시 여러분을 매우 그리워했다.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겠다. 오로지 당신이 잘 수련만 하면 나는 항상 당신들 곁에 있다. 많은 수련생들이 수련을 매우 잘하고 있으며 나 역시 알고 있다. 많은 수련생들이 개오(開悟)하기 전야에 있다.

최근에 나는 많은 수련생들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법을 얻기란 매우 쉽지 않다고 나는 말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나는 단지 소식을 들었다거나 혹은 친구가 나에게 알려주어서 우연히 이 책을 보게 되었거나 혹은 신문에서 소식을 얻고 내가 오게 되었고 이로써 대법수련의 이 길로 들어섰다고 느낄 것이다. 당신은 매우 간단하다고 보지 말라. 당신은 표면상에서 이 법을 얻은 것이 매우 쉽다고만 보지 말라. 왜냐하면 한 신선이 와서 당신에게 법을 얻으러 가라고 알려주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모두 속인의 이러한 형식으로 아주 평범하게 알게 된다. 그

러나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당신은 이 법을 얻기 위해 아주 쉽지 않았다. 아마 당신이 전반생(前半生)에서 겪은 고생은 모두 이 법을 얻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다. 또 당신이 모르는 것도 있다. 아마 당신의 전(前) 몇 세 심지어 더욱 긴 시간에서 모두 이 법을 얻기 위해 고생을 겪었거나 고달픔을 겪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법을 얻기 위해 더욱 큰 고통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는 당신이 모르는 것이다. 장래 당신이 원만을 이룬 후, 당신은 알게 될 것이며 또한 보게 될 것인데, 매우 쉽지 않았다. 이 법을 여러분은 이미 비교적 똑똑히 알고 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수련할 수 있는가? 바로 당신들이 이 법은 일반적인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과거 불교 중에서 석가모니부처는 많은 것을 증오(證悟)하였으며 그 역시 사람에게 많이 남겨주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석가모니부처가 사람에게 남겨준 이러한 것들을 계승하는 과정 중에서 점차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경서 중의 기재도 어떤 사람이 고치거나 바꿨다. 불교 경서의 각종 판본 중에 기재된 동일한 한 가지 일을 모두 같지 않게 썼다. 이 역시 석가모니부처가 전한 것으로 하여금 말법으로 들어가게 한 한 가지 요소이다. 물론 또 다른 원인이 있어 그것으로 하여금 말법시기로 들어

가게 했다.

오늘 이 사회는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수련할 수 없도록 했다. 나는 내가 전한 이 법이 매우 큰 법이라고 말하는데 아마 이 점을 수련생들도 이미 체득했을 것이다. 역사상 체계적으로 진정한 우주의 법리를 사람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사람에게 어떻게 수련하고 어떻게 수련하여 올라갈 수 있겠는가를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 물론 석가모니는 부처이며 그가 말한 것은 불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석가모니부처는 확실하고도 확실하게 우주의 근본적인 법을 사람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석가모니부처는 만년에 “나는 아무 법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며 마지막에 또 제자에게 “계를 스승으로 삼으라.”고 알려주었다. 무엇 때문에 이런가? 바로 석가모니부처는 최후 말법시기에 출현될 현상을 알고 있었고 그가 전한 법이 난잡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제자에게 오로지 당신이 내가 말한 이 계율에 따라 수련하면 당신은 수련인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원만을 이룰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그가 진정으로 사람에게 남겨놓은 것은 계율이다.

물론 석가모니 또한 부처이며 그가 한 말은 불성을 가지

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한 그런 말을 당신이 그는 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는 우주의 근본적인 대법이 아니며 최고의 천리(天理)가 아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남겨주는 것은 이 우주 중에서 속인의 이 단계에서 시작하여 줄곧 최고의 법까지 모두 포함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속인은 『轉法輪(전법륜)』 이 책의 표면에서는 보아내지 못하는데, 수련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한번 펼쳐보고는 끝내기 때문이다. 그가 이 책을 본 후에 “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다.”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볼 때에는 모두 이러한 감각이다. 당신들이 처음 수련할 때 아마 모두 이런 감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두 번째로 보았을 때, 당신은 그가 또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다. 당신이 첫 번째로 다 본 후 사상 중에서 제기된 문제를 두 번째 보았을 때 모두 해답을 얻을 수 있으며 동시에 당신은 이것은 속인의 책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에게 이것이 무엇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이 다시 계속해서 세 번째로 볼 때, 당신은 그가 진정으로 수련하는 책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당신이 만약 네 번, 다섯 번을 볼 수 있다면, 이로부터 이 책은 당신의 일생을 동반할 것이며 당신은 손에서 놓지 않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가? 내가 이미 말한 적이 있는데, 속인의 이치로 당신을 지도하여 부처의 경지로 수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의 내포는 매우 크다. 같은 구절이라도 부동한 층차, 부동한 경지 중에서 같지 않은 감수와 같지 않은 이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 속인의 서적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감수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수많은 오묘함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무슨 신통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심지어 내가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해 준 것도 당시 기공의 상황에 부합되기 위해 한 것이었으며, 그렇지 않다면 나는 병을 치료하지도 않는다. 당신이 수련하고자 하므로 당신의 신체가 개변되게 해야 하고 당신으로 하여금 불법신통의 일체를 수련해 내게 하며, 당신의 층차가 끊임없이 제고되게 해야 한다. 당신이 원만을 이룬 이후에 얻는 일체를 포함하여 나는 모두 이 법 속에 녹여 넣었다. 당신이 배우기만 하면 당신의 신체는 곧 변하며, 당신이 보기만 하면 당신의 사상은 곧 승화되며, 당신이 수련만 하면 당신은 곧 부동한 경지 중에서 부동한 경지 중의 상태를 얻을 수 있다. 만약 마지막까지 볼 수 있으면, 당신은 곧 이 책의 지도하에 원만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책이지만 그의 막대한 내포를 속인은 보지 못한다.

물론 이 속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이 자리에 앉은 법을 얻은 모든 사람, 대법 중에서 수련하는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당신들은 수련과정 중에서 이미 체득하였고 부동한 경지, 부동한 층차 중에서도 모두 그의 같지 않은 층차의 내포를 감수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방금 이 법 그는 일반적인 법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우주의 특성이다. 나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사람에게 전해 주었다. 물론 이 일을 매우 크게 하였다. 나는 재차 대법(大法), 대법이라고 강조하여 말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내가 말한 내용이 매우 많기에 그를 대법이라고 불렀다고 느낄 것인데 사실 아니다. 내가 말한 이 대법의 함의는 높고도 깊은 것이다.

아주 높은 경지 중에서 수련하는 수련생 그는 어떤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단지 사람만이 대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높은 경지 중의 생명도 모두 배우고 있으며, 이 법은 실로 지극히 크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여기에 앉은 이들은 모두 인연이 있어서 이 법을 얻었다. 나는 여전히 그 한마디 말인데, 사람마다 모두 이 법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이처럼 큰 공원에서 연공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좀처럼 보지 못하며 어떤 사람은 왔다 해도 그는 듣지 못한다. 그 역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사람마다 모두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보기만 하면 좋다고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사람이란 다르다. 하지만 이 속에도 역시 이유가 있는데, 내가 방금 말했듯이 이 책은 속인의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이 대법이 무엇 때문에 사람을 지도하여 매우 높은 경지 중으로 수련해 갈 수 있게 하는가? 왜냐하면 이 법을 매우 낮은 층차에서 보면 매 구절마다 말한 것이 모두 이치이지만, 만약 당신이 그의 진실한 정황을 볼 수 있다면 글자마다 모두 부처의 형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매우 높게 수련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천목 역시 매우 높게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현상을 발견할 것이다 — 매 글자의 배후에 같지 않은 층차의 부처의 층층첩첩의 나타남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라. 여기에 얼마나 높은 내포가 있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같은 말이 부동한 경지 중에서 부동한 상태의 변화가 있으며 부동한 층차 중에서 전체 이 법의 이치가 모두 변했는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책을 속인의 책으로 여기지 말고 반드시 그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과거의 사람들은 부처를 말할라치면 무한히 경양(敬仰)하는 마음이 일고 매우 수승(殊勝)한 상태 중에서 부처,

보살, 나한을 말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이 부처를 말할 때면 아무렇게나 내뱉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 아주 일상적인 것 같다. 이는 인류가 신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이 단계까지 발전하여 조성된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부처에 대하여 공경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대사(大事)이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함부로 부처에 대해 농담을 하고 심지어 식사에서도 부처를 비방하는데, 많은 요리의 이름마저도 부처를 비방하고 있다. 무슨 ‘나한재(羅漢齋)’요, ‘불도장(佛跳牆)’이요, 이러한 이름까지 올랐는데, 모두 부처를 욕하고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음식점 중 어떤 것들은 거사나 화상(和尚)이 운영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부처를 욕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듯하다. 왜 출가인이 수련할 수 없게 되었는가? 그는 어떻게 수련해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나한재’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나쁜가.”라고 여길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나한, 그는 세간의 일체 색미(色味) 집착이 없는 것인데, ‘나한재’란 그 요리는 색미(色味)가 구전(俱全)한 것이다. 당신이 그 경지 중에서 서서 이 문제를 한번 보라. 그를 욕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불도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세상의 이 맛있는 향미(香味)를

말고 부처조차도 담장을 뛰어 넘어 온다는 것인데, 이것은 부처를 욕하는 것이 아닌가? 부처가 사람의 음식에 집착하겠는가? 나는 오늘날의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사실 매우 많은 일이 부처에 대하여 이미 아주 불경한데, 어떤 정도까지 도달하였는가! 부처를 말할 때 사람들은 전혀 정념이 없으며 심지어 감히 직접 부처를 욕한다. 문예작품 중에서도 악독하게 부처를 왜곡하고 있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인류사회 그는 어떤 모양인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이 책, 이 대법은 내가 전한 것이며 나는 곧 일체 바르지 않은 것을 바로잡으려고 한다. 법 중에는 무수한 층의 각 경지의 불·도·신의 법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이 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바, 아무데나 던지거나 아무데나 놓지 말아야 한다. 초기 법을 전할 때 나는 이 문제를 말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강의를 들으면서 엉덩이에 깔고 앉았는데 당시에 당신이 몰랐기에 나무라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은 모두 수련하여 올라왔으며 이 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비로소 이 문제를 말하며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에 주의해야 함을 알려준다.

말하는 김에 또 한 가지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하겠다. 우리 많은 사람이 수련을 아주 괜찮게 하였으며 자신도 마치

수련을 아주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어떤 때 늘 머릿속에서 여전히 일부 문제가 반영되어 나오며 사상에서 일부 속인 중에 집착하는 것, 각종 정(情)의 표현이 반영되어 나온다. 어떤 수련생은 대단히 걱정하고 있다 — 내가 도대체 수련한 것이 어떠한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 주겠다. 만약 당신이 자신이 수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당신 역시 수련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하고 있다면, 당신 사상 중에서 확실히 이러한 상태가 나타났을 때, 당신은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속인사회 중에서 하는 수련은, 만약 당신 속인의 것과 업력을 전부 제거해 버린다면,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데, 당신은 단 하루도 속인 중에 있을 수 없다. 속인 사상 중에서 반영되어 나오는 각종 사상을 당신은 모두 견딜 수 없다. 왜냐하면 속인의 일언(一言), 일행(一行), 일념(一念)이 모두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아울러 이런 목적은 흔히 모두 사적인 것을 위한 것이므로 당신은 견딜 수 없다. 당신에게 이런 것이 없으면 속인과 접촉할 때마다 곧 다른 사람의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신은 결코 견디지 못한다. 당신은 곧 사람의 모든 언행이 매우 강한 집착을 띠고 있다는 것을 감수하게 되어 속인 중에서 수련할 수 없게 되고 지낼 수도 없으며 일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

게 서서히 표면상의 사람의 고만한 것들을 제거해 버리는 데, 원만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전부 제거해 버리게 한다.

그럼 아직 제거하지 못한 고만한, 속인 중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속인 중에서 수련할 수 있게 한다. 당신이 자신의 이러한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당신은 이미 진보한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배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이 자신을 수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것들은 당신이 단번에 그것을 제거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련 중에서 아주 서서히 제거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이러한 것을 똑똑히 구별해야 한다. 원만을 이루는 그 날에 이러한 것들을 전부 제거하게 된다.

또 한 가지를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수련이란 확실히 아주 고생스럽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속인 중에서 수련하기 때문이다. 이익과 정(情) 속에서 집착심을 제거할 때, 당신들은 체험할 수 있다. 아직 이 상태 속으로 진입하지 못한 새로운 제자들은 것처럼 큰 저애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곧 업력이 있으며, 게다가 업력이 조성한 이런 요소가 사람의 수련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체현되어 나오는 것은 일하는 가운데 곤란이 있다든가,

일할 때 마음이 불쾌하다든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순이라든가 혹은 신체적인 불편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시끄러움은 흔히 올 때 모두 아주 갑작스럽고 아주 침예하다. 당신들은 자신이 수련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가끔은 그 마음을 내려놓기가 아주 어려운 것 같다. 이 점을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여러분은 수련 중에서 그래도 걸어나가야 한다. 당신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어쨌든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한다. 끊임없이 당신을 연마(魔煉)시켜 결국에는 역시 이 마음을 내려놓게 한다.

또 하나 문제가 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 법을 듣는 사람, 법을 얻은 사람들은 모두 인연이 있을 것이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한 법은 확실히 대단히 높고 당신들에게 남겨준 것도 역시 대단히 높다. 당신들 수련 역시 아주 빠르다. 특히 근간에 법을 얻은 사람들은, 뒤에 온 사람이 앞서는 듯한 느낌이 있다. 내가 이번 미국에 가서 느낀 것이 있다. 중국 대륙, 대만, 국외의 많은 화교, 유학생, 박사, 석사, 고급 지식인 혹은 교수, 과학 연구를 하는 제지들, 이러한 사람들이 층차를 아주 빨리 돌파하고 있다. 물론 그의 학문이 높기에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근기(根基)가 좋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법을 뒤늦게 얻었으나 일단 법을 얻은 후, 내가 발견하건대 일반적으로 서서히 인

식하는 과정이 없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이 모두 인식과정
이 있었고 서서히 승화해 올라왔다. 그들은 대부분 이런 인
식과정이 없고 얻었으면 그대로 수련했다. 비단 이해가 빠
를 뿐만 아니라 즉시 법 속으로 녹아 들어갔다. 이것은 그
들이 얼마나 높은 속인의 학문이 있기 때문에 조성된 것이
라고 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는 근기문제이다. 물론 법을
얻은 사람에게는 인연이라는 요소가 있다.

나는 이 법을 이미 체계적으로 당신들에게 모두 말했고,
전해야 할 것을 완전히 당신들에게 남겨주었다. 그뿐만 아
니라 이미 말한 최고의 법리는 아주 높다. 그러므로 내가
재삼 반복해서 말하면 교란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왜냐하
면 내가 강의하면서 한 글자도 차이나지 않게 똑같이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남겨지는 것이 이미 당신
들에게 주어 고정된 이 법을 교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나는 더는 체계적으로 설법하지 않는다. 만약 특수한 정황
이 나타나지 않으면, 앞으로 내가 더 말하는 것은 모두 인
류사회가 직면한 일부 문제들과 장래의 일이다. 이 모두가
인간의 일이다. 이 시기의 수련에 관한 것은 이미 모두 기
본적으로 전부 원만하게 알렸다. 『전법륜』은 이미 매우 높
고 매우 높게 썼다. 나중에 내가 또 일부 것들을 말했는데
장래에 역시 문자로 정리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여러분에

게 알려주는데, 진정하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수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전법륜』이다. 다른 책은 얼마가 더 나와도 모두 『전법륜』의 보조(補助)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전법륜』이 책에 따라 수련해야 한다.

우리 수련생들은 부처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부처에 대한 인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몇 년간 다만 법을 전할 따름이고 부처의 부동한 경지 중의 정황과 불·도·신과 우주의 정황을 적게 말했기 때문이다.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전한 이 법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어떠한 구체적인 것도 끼워 넣을 수 없었으며 모두 끼워 넣을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수련생이 이 방면의 이해가 부족하고 부처와 상하 부동한 층차의 중생에 대해 이해함이 아주 적다. 부처, 보살, 또는 부처의 경지, 부처의 세계, 이 방면에 이해가 아주 적다. 사실 정말로 부처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당신들은 사람의 사상으로 이해할 것인데 그것은 부처에 대한 불경(不敬)이다. 장래 수련 중에서 많은 수련생들이 모두 볼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 자신이 이 한 부분을 충족시킬 것이다.

이 우주는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그 복잡한 정도는 단지 사람뿐만이 아니고 불·도·신마저도 경탄할 정도이다. 인간이 인식하는 이 우주는 단지 한 층차면(層次面)상의 것

일 뿐이다. 내가 이전에 말한 적이 있는데, 인류가 인식할 수 있는 물질표면, 볼 수 있는 가장 큰 입자는 별(星球)·은하계이고, 계측기로 알 수 있는 가장 작은 입자는 분자, 원자, 원자핵, 중성자, 전자, 쿼크, 중성미자가 있는데, 더 아래로는 모른다. 그러나 사람의 본원물질(本源物質), 생명을 구성한 본원물질과는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모른다. 무수한 억 배, 무수 무수한 억도 아직 끝이 아니다. 물질이란 그런 정도로 미시적이다. 그러나 물질은 미시적일수록 전반 체적은 더욱 큰바 당신은 한 개 입자만을 보아서 안 된다. 그것의 한 개 입자는 단지 그것 그 체적의 한 점에 불과하나 그것이 오히려 정체(整體)이다. 물질의 입자가 미시적일수록 그것의 전반적인 그 면이 더욱 크며, 물질이 구성된 입자가 더욱 크다고 하여 그것의 층차면(層次面)이 반드시 더 큰 것은 아니다. 인류는 단지 분자로 구성된 이 공간만을 인식하고도 여전히 자만하여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실증과학의 정의(定義)로 자신을 제한해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공기, 물, 강철, 나무, 사람의 인체를 포함해 당신이 생활하는 일체 공간은 모두 분자로 구성된 것이다. 당신은 마치 분자 이 경지의 바다 속에, 분자로 구성된 이 입체화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과 같다. 우주선이 아무리 높게 난다 해도 역시 분자로 구성된 이 공

간을 벗어나지 못하며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사람의 두뇌와는 비교할 수 없다. 물론 인류사회 역시 돌파가 조금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인류는 이미 분자, 원자, 쿼크 심지어 중성미자까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이 본 것은 단지 입자가 존재하는 한 점이고, 같지 않은 입자가 존재하는 전반적인 면(面)은 보지 못했다. 만약 그 면을 본다면, 사람은 우주의 다른 공간이 진실하게 존재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그 원자 그것은 단지 인류가 본 한 개 입자만이 아니다. 그 입자 자체를 말하면, 만약 그것을 확대해 본다면, 한 개 작은 별(小星球)처럼 크게 확대한다면, 곧 원자 물질로 구성된 물체상의 그러한 원자로 구성된 생명, 물질, 물, 식물이 존재하는 일체 물질형식을 볼 수 있다. 인류는 이 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사실 사람은 두 개의 입자 사이에서 생활하고 있는바, 일체를 구성한 것은 분자로서 우리가 눈으로 본 가장 큰 입자 그것이 바로 별(星球)인데, 분자 입자와 별 사이에서 생존하고 있다. 오늘 내가 말하지 않으면 과학자도 인식하지 못할 것인데, 인류는 아직 별 역시 입자임을 생각하지 못한다. 무수한 별로 구성된 것은 더욱 큰 입자로서 그것은 각 은하계이다. 성계(星系)는 또 더욱 큰 우주범위를 구성하는데 그건 아직도 가장 큰 입자가 아니다. 물론 내가 말한 이 개

님은 아마 당신의 사상을 단번에 아주 높게 밀어 올렸을 것이다. 만약 당신의 신체가 별과 같은 그 층 입자로 구성된 신체와 같이 크다면, 당신이 되돌아 지구를 보면 분자 같지 않겠는가? 인류의 물질에 대한 인식에 의거해 볼 때, 사실 별은 아주 확실한 한 층 입자이다. 이것은 거시적으로 말한 것이다.

사람은 늘 하늘을 말하는데, 어디가 하늘인가? 어디가 위인가? 이 우주 중에는 전혀 상하, 좌우, 전후의 개념이 없다. 위로 향한 것이 위라면 아래로 향한 것도 위가 아닌가? 이 우주는 등근데 지구는 거의 중심위치에 있다. 왼쪽이 위라면 오른쪽 역시 위이고, 아래가 위이면 정수리 역시 위이다. 이는 천기(天機)를 말한 것으로, 나는 방금 입자가 미시적일수록 그의 층차면(層次面)은 오히려 아주 크다고 했다. 사실 한 생명이 더욱 미시적인 속으로 돌아갈 때는 이미 더욱 크고 더욱 위인 곳에 있는 것으로,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입자가 미시적일수록 그의 층차는 더욱 높기 때문이다. 이는 한 가지 아주 홍대(洪大)한 개념인식이다. 나는 방금 우주에 대한 인식 방법을 말했는데 이것은 단지 여러분에게 공간의 인식 방법을 조금 말했을 뿐이다. 아직 더욱 복잡한 것이 있다. 물론 더욱 많은 것은 장래에 당신들이 개오(開悟)한 이후에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라.

하늘의 구체적인 것을 인간에게 너무 많이 남겨줄 수 없다. 사실 인류의 실증과학이 만약 매우 높게 발전되거나 혹은 인류의 경지를 초월한다면, 그건 인류에 대해 더욱 위험하다. 인간은 절대 과학기술수단을 통해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으며 이는 절대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칠정육욕(七情六慾)의 각종 집착심이 있기 때문이다. 쟁투심, 질투심, 색욕, 이러한 것을 하늘로 갖고 간다면 그야말로 큰일이다. 그럼 부처, 보살과 싸울 수도 있는데 정말로 우주대전(宇宙大戰)이 출현할 것이다. 인간 그가 속인의 마음을 가진 채 과학기술을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인류의 과학기술은 다만 선천(先天)적으로 정해 놓은 대로 발전하고 있을 뿐이다. 그가 만약 대단히 높게 발전한다면 그 과학기술 자체와 인간은 마찬가지로 훼멸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내가 본 상황이다.

다음으로, 나는 되돌아 다시 이 공간을 말하겠다. 내가 방금 말한 이런 공간형식은 개괄적인 인식방법이다. 석가모니부처도 그 당시 일정한 범위의 우주에 대한 인식을 말했다. 예컨대 그는 인류와 삼계 내와 삼계 밖의 일정한 범위의 구체적인 정황을 말했는데, 수미산지설(須彌山之說)

같은 것이었으며, 또한 수미산의 존재형식도 말했다. 수미산 사면에 사대부주(四大部洲)가 있으며 양대층천(兩大層天)이 있다. 사실 석가모니부처가 한 말이 중국으로 전해와 중국어로 번역되거나 또는 인도에서 유전되는 과정 중에서 모두 오류가 있었다. 석가모니부처가 말한 이 수미산의 양대층천(兩大層天)은 전혀 양대층천이 아니었고 두 개 우주의 개념이었으며 이는 소우주와 제2층 우주의 인식이었다.

제2층 우주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인류가 인식한 이 우주는 수많은 은하계로 구성된 것이다. 이 또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이 한 층 공간의 구조에서부터 말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주이다. 바로 이 우주인데, 우리 인류는 영원토록 그의 변두리를 볼 수 없다. 이 우주 그것은 천체 중의 유일한 우주가 아니다. 아득한 천체 중에서 역시 가장 큰 한층 입자가 아니며, 여전히 매우 많은 이처럼 큰 우주가 있어서 더욱 큰 우주범위를 이루었으며 역시 외곽이 있다. 그것도 단지 더욱 큰 한 층의 입자를 이뤘을 따름이다. 이 우주는 그야말로 방대하다. 인간으로 말하면 불가사의하게 느껴지지만 신으로 말하면 그건 아직도 한 층 입자의 작디작은 부분일 뿐이다. 그러나 더욱 큰 부처로 말한다면, 그것이 작기로 정말 무엇이랄 할

수 없다. 같지 않은 경지의 사상방법, 사유방법, 관념은 모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방금 전에 나는 석가모니부처가 증오(證悟)한 그 수미산(須彌山)을 말했다. 그것은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 이 은하계와 태양계의 북쪽에 있다. 그럼 ‘북(北)’이라는 개념은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주 중에는 이런 개념이 없고 지구는 또 돌고 있기 때문이다. 석가모니부처의 말에 따라 말하자. 이렇게 말해야만 여러분이 이 개념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처럼 여기를 말하지만 그가 내일은 또 저쪽으로 돌아간다. 석가모니부처의 말에 따르면 북쪽이니, 우리는 그것이 북쪽에 있다고 말하자. 이 수미산(須彌山)은 얼마나 높은가? 수미산은 은하계를 벗어났고 내가 방금 전에 말한 이 우주의 범위, 많고 많은 성계(星系)로 구성된 이 범위를 벗어났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계는 얼마나 큰가? 성계와 성계 사이에는 또 일정한 거리가 있다. 수미산(須彌山)은 이 우주를 벗어났고 제2층 우주의 중심위치에 있는데 곧 이처럼 큰 산이다. 사실 수미산은 세 개 산이 한데 연결된 큰 산이며, 이 세 개 산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아미타불,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이다. 아미타불은 이 경지의 제1위 부처이다.

석가모니부처가 증오(證悟)한 것은 사람들의 그에 대한

인식을 훨씬 넘어섰다. 석가모니부처는 하늘과 그의 전세(前世)를 많이 말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진정한 경험을 전혀 말하지 않았으며 특히 열반 이후의 일을 아는 사람은 더욱 없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부처마다 자신의 세계가 있다. 아미타불은 극락세계가 있고, 유리세계(琉璃世界)는 약사불이 주지(主持)하고 있으며 또 연화세계(蓮花世界), 미호세계(美好世界)가 있고, 예수와 원시천존(元始天尊)도 모두 그들의 세계가 있다. 인류가 존재하는 은하계 범위에 있는 이러한 천국세계 100여 개가 대응하고 있다. 부처도 아주 많아서, 석가모니부처는, 여래경지에 도달한 부처는 갠지스 강의 모래숫자와 같다고 말했다. 매 한 여래부처가 한 천국을 주지하고 있는데 당신이 생각해 보라. 이 우주 그는 얼마나 큰가? 그럼 석가모니부처가 최후의 한 개 층차에서 내려올 때는 제6층 우주였다. 이 숫자는 아주 큰 것으로 6층 우주는 6층 하늘이 아니다. 그는 그 곳에 세계가 있는데 대범(大梵)세계라고 부른다. 후에 석가모니부처가 속인사회에 와서 사람을 제도하였고 그는 개오(開悟)한 후 49년 동안 법을 전했으며 돌아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석가모니부처는 자신의 역량, 그가 온 이처럼 높은 층차에 의거해서도 역시 단지 푸웬션(副元神)만 제도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수련자로 하여금 일세(一世)에 아주 높이 수련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그 부처들에게 모두 자신의 세계가 있음을 다 알지만 석가모니부처에게 자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누가 들은 적이 있는가? 말한 사람이 없다. 석가모니부처가 바로 사바세계(娑婆世界)에 있다고 말하지만 사바세계(娑婆世界)는 어디에 있는가? 사람을 포함한 바로 삼계이다. 그 부처의 세계가 어찌 사람의 세계이겠는가? 누구도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다. 실제적으로 석가모니부처 그는 평소에 줄곧 대범천(大梵天)에 있는데, 그는 대범(大梵)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그는 그 층의 하늘도 대범천(大梵天)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대범천(大梵天)은 무색계에서 가장 높은 천상(天上)에 있으며, 역시 삼계 내이다. 그는 왜 이곳에 있으면서 가지 않았는가? 대범이 전해지기 전에 그는 여전히 부처의 신도들을 지키고 있었고 2천5백 년 동안 사실 그는 대범이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석가모니부처가 온 마지막 층차가 대범(大梵)세계지만 그는 그 곳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세에 대범이 전해짐을 위해 문화를 다져놓았고 속인 속에서 아주 많은 고생을 했으며, 대범에 동화된 후 그는 더 높은 경지로 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석가모니부처의

진실한 정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줄곧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를 말하자면 실로 너무나도 길다. 나는 층층의 우주 부동한 천체를 거쳐 아래로 걸어왔고, 층층마다 환생하였으며 인간세상 속에서 분체(分體)하여 환생했다. 일세 중에 모두 아주 많은 내가 있었는데, 방대하고 복잡하기가 말할 길이 없다. 나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보건대 나는 일체 천체 우주 밖에 있지만, 못 신과 부처와 중생은 모두 그 안에 있다.

우주 중에는 성(成), 주(住), 괴(壞)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우주가 존재하는 법칙이다. 우주의 나이는 대단히 많다. 이 우주의 과정 중에서 조기에 생긴 불·도·신의 나이는 모두 무척 많은 것으로, 마치 사는 것마저 조금 싫증이 난 것 같다. 시간이 너무나 아득하여 신들로 하여금 역사를 잊게 할 수 있었다. 그들은 심지어 그들의 과거도 잊어버렸다. 층차가 높을수록 그의 시간은 더욱 느렸고 그의 범위와 체적은 더욱 크다. 성(成), 주(住), 괴(壞)의 개념은 더 높은 경지 속에서 매우 아득하며, 심지어 한 생명인 당신으로서는 전혀 생각할 필요도 느끼지 못할 만큼 크다. 일체 시간과 우주 범위 밖에 있는 주불(主佛)은, 중생이야말로 우주가 존재하는 의미라고 여겼다. 우주 중에서

부동한 층차의 수많은 겁난이 나타났기 때문에 최고경지를 제외하고 가장 원시적인 우주가 어떤 모습인지를 아는 생명이 없다. 낡은 것을 새것으로 바꾼 이후에는 과거의 일체는 모두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주 속의 중생을 남겨야 했는데,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아주 어려웠다.

우주가 생기기 시작할 때 수많은 신들은 우주의 말겁(末劫) 시기에 나타날 문제들을 보았다. 그 신들은 무척 걱정하며 모두 자신을 구원하려고 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그렇게 높은 위덕을 갖추지 못하면 이 일은 막을 수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었다. 한 층 한 층이 모두 이 일을 하려고 생각하여 역사상 아주 많은 신들이 왔다.

그러나 우주 중에는 예부터 한 가지 이치가 존재하는데 바로 이 층의 생명은 한 층 더 높은 층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으며, 한 층 더 높은 층도 그보다 한 층 더 높은 층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매 층의 신은 자신이 가장 높다고만 알고 있었다. 때문에 서방의 예수는 그의 부친 — 여호와가 주(主)라고 말했다. 여호와는 유태인종의 주이고 유태인종을 만든 자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유태 백인종과 그의 부동한 층차 생명의 최고였다. 그러나 다른 체계 속에는 또 다른 인종을 만든 주가 있고 아울러 더 높고 더 높고 더 높은 곳에 신과 중생이

또 있지만, 낮은 층의 신과 세인은 이를 모를 뿐이었다. 신도 다만 자신 이 층차의 불법이치(佛理)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이 최후의 결과를 보았을 때, 못 신들은 모두 방법을 생각해 우주의 성주괴멸(成住壞滅) 최후단계의 무서운 결과를 해결하고자 분분히 세상으로 내려왔는데 아주 많은 신들이 왔다. 어떤 신은 그의 전반 그 한 층의 우주가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고생을 하였고, 그리하여 이렇게 큰 위덕을 갖추어 구원할 일을 완성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똑같은 한 가지 문제에 부닥쳤다. 그들 모두 가장 높은 것이 아니어서 더 높고 더 높은 경지에도 문제가 생기면 그들이 원래 있었던 경지도 역시 집난 속에 있게 된다. 그럼 내려온 못 신들도 공이 없이 휘멸되어 이런 결말을 해결할 수 없고 돌아갈 수도 없었다. 실제상 일체가 모두 이렇게 발생했다. 구도(救度)와 위를 향한 정법 중에서 나는 이렇게 온 아주 많은 이들을 법에 동화시킨 후 모두 돌려보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오늘 내가 말한 이 문제는 상당히 높다. 석가모니부처는 한 마디 말을 했다 — 장래 어느 어느 해 이후 그때에 미륵불이 올 것이다. 나는 이 시기에 왔다. 하지만 나는 미륵불의 층차가 아니다.

나는 또 여러분에게 아주 큰 천기(天機) 하나를 말해 주

겠다. 이 일을 이전에 내가 말한 적이 있다. 하늘의 부처, 예를 들어 당신들이 알고 있는 여래, 보살은 사실 모두 하나가 아니다. 대략 10년 혹은 10년을 초과하지 않고 하나씩 바뀌야 했다. 지금의 아미타불도 가장 초기의 그가 아니고, 관음보살 역시 가장 초기의 그가 아니다. 무엇 때문인가? 인류 삼계는 대단히 복잡하고, 그들은 또 삼계와 너무 가깝게 있어 아래의 좋지 못한 것들이 그들을 직접 교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 보살이 사람을 제도하는데, 사람은 부처와 보살에게 영향을 주기가 쉽다. 만약 그들이 장기간 제도한다면 그들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공간은 대략 10년을 전후하여 그들을 하나씩 바꾼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세계에서는 아주 긴 시간이다. 더욱 큰 공간 속의 구체적인 공간의 시간은 오히려 아주 빠르는데, 10년이면 일부 공간에서는 이미 수만 년의 시간이 흐른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 속에서는 부처, 보살을 오래 머물게 할 수 없다. 하늘에는 규정이 있다. 일정한 층차 속에서 무슨 신이든지 일정한 시기가 되면 모두 바꾼다. 목적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과거에 인간세상의 일부 기록 중에도 이런 기록이 있는데 단지 사람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를 뿐이다. 여러분은 관음보살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역사상 부동한 기록

이 있다. 예컨대 남해관음보살이라는 보살이 있는데, 묘장왕(妙莊王)의 딸이 관음보살로 수련 성취되었다고 하고, 또 인도의 쌍마동자(雙馬童子)가 관음보살로 수련 성취되었다는 등등등등은 모두 진짜인데, 단지 동일한 생명이 아닐 뿐이다. ‘관음보살’이란 장엄하고 수승(殊勝)하며 대자비한 각자의 원시(原始)형상과 변하지 않는 자비의 명호(名號)이다. 매 번마다 관음보살 하나가 수련하여 올라갈 때, 그녀는 지상에서 그녀의 장래에 자신을 이어나갈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을 도와 그녀 자신과 똑같은 자비를 닦게 한다. 역시 그렇게 높은 층차이고, 그렇게 큰 위덕이며, 그렇게 큰 고생을 겪을 수 있고 그렇게 큰 위력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이 원만을 이뤘을 때, 그녀는 그녀를 제도해 올라와 자신을 대체하게끔 했다. 매 한 불·도·신은 모두 이렇다. 과거에 이는 가장 비밀스런 천기(天機)였는데, 오늘 당신들에게 말해 주었다.

나는 왜 당신들에게 말해 주는가? 내가 한 가지 문제를 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석가모니부처가 미륵불의 명호(名號)를 말한 때부터 2천여 년 동안 이 미륵불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른다! 포대화상(布袋和尚)이 그 중의 한 사람인데, 이것이 바로 왜 미륵과 포대화상을 함께 언급하는가이다. 그러나 미륵불의 형상은 포대화상처럼 큰 배와

크게 웃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가 세상에 있을 때의 사람 형상에 불과하다. 부처는 매우 신성하고 장엄하며 모두 매우 젊고 아름답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 아름답기 때문이다. 보기에 그 진실한 미륵불은 마치 20세 전후의 모습이고, 관음보살은 17,8세의 모습이며, 대세지(大勢至)는 바로 15,6세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관념은, 40여 세의 사람은 안정적이고 불혹(不惑)의 나이에 닿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그러한 형상으로 빚었다. 그러나 하늘의 신의 사상은 지혜와 층차의 경지로 결정되는 것이며 신의 자비와 지혜는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속인은 늘 속인의 인식을 사용한다.

그렇다면, 이 일세에 이른 미륵불, 다시 말해서 내가 법을 전하기 시작할 때, 최후의 그 미륵불은 사실 여성이 수련하여 성취한 것이지만 미륵의 형상은 남성이다. 사실 ‘미륵’ 두 글자의 고인도어의 발음이 그 당시에 그다지 정확하지 못했는데 중국어로 번역되었을 때는 더욱 정확하지 못했다. ‘미래(彌來)’로 발음하는 것이 있고, ‘미륵(彌勒)’이라고 발음하는 것도 있으며 또 다른 발음도 있었는데 장래에 당신들에게 정확한 발음을 알려주겠다. 이번 시기 미륵이 그의 일을 끝마치려고 할 때가 바로 내가 출산(出山)할 때였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이 층차가 아니다. 천체중의 신들은

내가 부처의 법(佛法)·부처의 모습(佛像)으로 각계 중생을 구도하러 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며 그들도 미륵이 왔다고 인정했다. 미륵불도 그가 전승한 것을 다 나에게 주었다. 그러나 못 신들은 근본적으로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다만 하세(下世)하여 사람을 제도하러 왔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동시에 그들이 모두 나에게 절에 가라고 재촉했으나 나는 절에 가지 않았다. 왜 절에 가지 않았는가? 왜 나하면 나는 더욱 큰일을 하려고 하며 더욱 큰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의 사람은 이미 부처를 믿지 않으며 절의 승려, 거사가 너무 적었다. 절에 다니는 신도들과 인류의 총 숫자와 비교하면 실로 너무나 적으며 말법시기에 부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절에서는 세인들을 널리 제도할 수 없으며 더욱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얻게 할 수 없다. 일단 절에 들어가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더욱 법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 나는 이런 정황을 보았기 때문에 출가하지 않았고, 바로 속인사회에서 대법을 전했다.

물론, 이 속에도 문제가 있는데, 역시 많은 화상(和尚)이 납득하지 못하는 문제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말한 것은 불리(佛理)와 불법(佛法)이지만 석가모니부처가 말한 법이 아니다. 사실 설령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사

람을 제도할지라도 역시 석가모니부처의 말을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다시 사람을 바꾸어도 석가모니부처가 했던 말은 아닐 것이다. 마찬가지로 불법을 말한다 해도 모두 부처 자신이 증오(證悟)한 법리이다. 그렇지 않은가? 지금 화상(和尚)이 가장 내려놓을 수 없는 곤혹은, 그들은 석가모니부처가 유일하게 불법을 말했고 그것이 우주의 유일한 불법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이 불법 중의 작디작은 일부분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석가모니부처가 말한 것은 그가 증오(證悟)한 부분이고, 심지어 석가모니부처도 자신이 알고 있는 법의 전부를 말하지 않았으며, 단지 그가 보기에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그 부분만 남겨주었을 뿐임을 모른다. 사실 석가모니부처가 말한 법도 과거의 육불(六佛)이 말했던 법과 같지 않다. 하물며 내가 이번에 말한 것은 전반 우주의 특성으로서, 불법(佛法) 신법(神法) 도법(道法), 일체 법의 근본적인 것이다.

만약 삼계(三界)와 인류가 정법을 위해 마땅히 있어야 할 작용을 일으켰다면 장차 인류에게는 무량한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 높은 경지 중에서 내가 원하는 일체를 만들었으며 인간으로 환생하여 세상에 왔지만, 나의 위덕은 일체 경지를 초월한 밖에서 주재하고 있다. 내가 왔다고 하지만, 나는 삼계의 중생과 얼마나 많은 층의 입자의

간격을 두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우주가 존재하는 가장 본원의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나는 그 속에 있지 않다. 나는 일체 우주 지혜를 구성하는 원천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생은 부동한 층차의 우주 내의 물질로 구성된 것이다. 내가 오지 않았다고 말하면, 나는 사람의 경지에 있지 않지만 오히려 인간세상에서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말한 것이다. 장래에 나는 이 일을 헤아려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이지만 더욱 많이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 이미 아주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래에 수많은 해가 지난 후 인류는 이 일체를 역시 신화 이야기로 여길 것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한 가지는 바로 사람들이 무슨 무슨 의화단(義和團)을 만든다든가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하는, 권력을 빼앗길까 봐 가장 두려워한다. 나는 우리가 절대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며, 절대로 정치에 간섭하지 않고, 절대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만약 리홍쯔(李洪志)가 정치에 참여했다면 오늘날 전한 것은 바로 사법이다. 당신들은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 역사상에서 나 리홍쯔(李洪志)가 어떻게 이 법을 전했으며 당신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했으면, 천추만대로 당신들은 모두 따라서 배워야 하는바 절

대로 그로 하여금 빛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당신들에게 남겨둔 형식을 장래에 후세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느슨하게 관리하며 돈을 만지지 않고 직위가 없으며 벼슬을 하지 않는다. 수련하는 사람이 돈을 만지기만 하면 복잡해지며, 명리(名利)는 인간이 수련하는 데 최대의 장애이다.

물론 당신은 속인사회 중에 있으며 당신은 당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당신이 돈을 벌고 속인의 벼슬을 하며 속인의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모두 당신의 수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들에게 전해준 수련형식이다. 수련형식 중에는 벼슬을 줄 수 없으며 불법을 돈 버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보도소도 돈을 저축하지 않는데, 이것은 수련형식이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큰 법을 사람에게 전해준은 절대로 3년, 5년 떠들썩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장래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얻을 것이며, 매우 많고 매우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얻을 것이며, 이 숫자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게다가 이 법은 다만 인류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중국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며, 전 세계에서 더욱 많은 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두 법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우주의 법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디 그를 소중히 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이전에 당신들은 무엇인지 몰랐다. 더군다나 나는 초기에 이 법을 전할 때 기공의 형식으로 전했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법을 인식하는 데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갑자기 이처럼 높은 법을 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왜 오늘날 역사상에 기공이 나타났는가? 바로 내가 오늘날 이 대법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길을 닦아 놓은 것이다. 기공사 자신도 무엇 때문인지 모르며 가짜 기공사는 더욱 모르는데 그런 가짜가 아직도 사회상에서 화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진정하게 길 닦기 역할을 한 그런 기공사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끝마쳤는데, 어떤 이는 누군가가 그에게 나와서 여기까지만 하라고 한 것을 알고 있다. 만약 그들이 나와서 기공을 전하지 않고 기공이 사회상에서 널리 전해지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날 갑자기 이렇게 높은 법을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왜 기공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대법에 화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들에게 좋은 결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사실 이미 지옥 속에 있다. 단지 그들의 인간세상의 수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이다.

대법의 유전과정은 시련을 겪었으며 매우 쉽지 않았다. 이것은 정법이므로 필연적으로 교란을 만나게 될 것이다.

바른 것이 나타나면 일체 부정(不正)한 것과 바르지 못한 것을 모두 건드리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아주 순조롭게 전해 내려온 것은 반드시 옳지 못한 것에 부합된 것이며, 그러기에 번거로움이 없다. 마난(魔難) 속에서 정념정행 하지 않으면, 그가 세인에게 남겨둘 참조와 위덕은 없다. 장래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여러분은 모두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이 우주 중에 마가 존재하는 것을 허용한다. 무엇 때문에 그것의 존재를 허용하는가? 내가 한 가지 이치를 말하겠다 — 상생상극(相生相剋)은 우주의 저층, 특히 삼계 내의 이치이다. 왜 상생상극의 이치가 존재하는가? 일정한 우주 개념의 중간 층차에 두 종류의 물질이 존재하고 있는데, 두 종류의 물질은 아래로 분화되면 두 종류의 같지 않은 물질로 변한다. 왜냐하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아름답지 못하며 위로 올라갈수록 아름답는데, 아래로 갈수록 더 분화되어 차이가 갈수록 커진다. 그럼 이 두 종류의 같지 않은 물질이 우주 아래로 내려오면, 그 둘의 같지 않음과 차이가 더욱 표현되며, 아래로 내려올수록 차이가 크다. 그런데 더 아래로 내려오면 두 종류의 같지 않은 물질은 대립성을 나타낸다. 더 아래로 내려오면 더욱 뚜렷하게 대립하는데, 이로써 바로 상생상극의 이치가 나타나는 것이다. 더 아래로

내려와 또 태극의 음양학설이 생겼다. 더 아래로 내려와서 특히 인류 이 단계에 이르렀을 때, 상생상극의 이치는 더욱 뚜렷하다. 부처 이 경지에 이르렀을 때, 부처는 실질상 무엇인가? 불타(佛陀)는 바로 우주의 보위자이다. 여래불인 그는 그 세계의 법왕(法王)이며 그의 관리는 어떤 수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비와 위덕을 사용하고 그의 중생도 모두 그의 그 세계의 표준에 부합되는데 대단히 아름답다. 이 경지 중의 상생상극의 이치 중에서 부처(법왕)와 서로 대응되는 것이 바로 마왕(魔王)이다.

마왕을 말하자면, 여러분은 밀종(密宗)을 알고 있지 않은가? 나는, 밀종은 속인사회 중에서 유전되어서는 안 되며 다만 비밀리에 수련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말했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밀종은 정각(正覺)을 닦을 뿐만 아니라 마왕도 닦는데, 부처(법왕)도 닦고 또 마왕도 닦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사회에서 만약 이런 것을 전한다면, 사회상에서 어떤 결과를 조성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나는 밀종 그것을 사회에서 전해서는 안 되고, 다만 절에서만 닦을 수 있다고 늘 말했다. 무릇 사회상에서 전하는 것은 모두 가짜이며 사기를 치는 것이다. 상생상극이 속인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귀신이 있다는 표현으로서, 바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렇게 서로 대

응되는 이치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런 대립성이 있기에 이런 상생상극의 이치가 존재하고, 그것이 속인사회의 이런 상태를 가져다준다. 내가 전한 법을 포함해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세인 중에는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사람이 있으며, 공적(公的)인 것을 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적(私的)인 것을 위하는 사람이 있고, 흥금이 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흥금이 좁은 사람이 있다. 일반일정(一反一正)이 바로 이런 대응관계이며, 이 일체 표현이 바로 인류사회의 상태이다.

속인사회 중의 어떤 일의 표현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이 한 가지 좋은 일을 이루려고 할 때, 당신은 상응한 크기의 어려움이나 어떤 교란을 돌파해야만 비로소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상생상극의 이치가 가져다 준 제약성이다. 바로 이런 이치가 존재하고 마성의 교란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것을 얻기가 쉽지 않으며, 당신이 일을 완성하려면 노력을 해야 한다. 당신의 노력이나 분투를 거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얻었을 때, 당신은 비로소 그것을 소중히 할 줄 알고, 기쁨을 느낀다. 어렵게 얻어야만 당신은 귀중하다고 느끼고, 승리를 얻은 후의 희열이 있을 것이다. 만일 이 상생상극의 이치가 없고 마의 교란이 없어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기만 하면 성취되고 마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이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귀중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며, 당신은 승리후의 희열도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당신은 사는 것이 무료하다고 느낄 것이고 사는 재미도 없을 것이다. 하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면 무엇을 해도 모두 의미가 없다. 사람은 사는 것이 재미도 없고 멋이 없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좋지 않다고만 보지 말라. 그것은 이런 한 가지 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왜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말하는가 — 사부님은 왜 마를 깨끗이 청리해 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마를 다 청리해 버렸다면 당신은 오늘날 수련할 수 없다. 누군가 당신이 최종적으로 이 법에 대하여 견정한가 견정하지 않은가를 고험(考驗)함이 없고, 마의 교란이 없다면 당신은 어떤 마음들을 제거해 버리지 못하며, 마의 교란이 없다면 업을 소멸할 수도 없는데, 바로 이런 이치이다. 사람과 사물, 생명 자체도 모두 이 두 가지 특성이 존재하며 사람은 바로 불성과 마성으로 동시에 구성된 것이다. 당신이 불리(佛理) 중에서 수련할 때는 바로 당신의 마성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며, 사람이 자신을 느슨히 하여 어떠한 도덕적 단속이 없을 때가 바로 마성의 대발작이다. 사람이 격동할 때, 미친 듯이 고함지

를 때, 화를 낼 때가 바로 마성의 대분출이다. 지금은 만마(萬魔)가 세상에 나와 사회의 각개 영역에서 모두 사람이 마성을 발산하도록 이끈다. 미술작품, 문예작품, 문학작품이 제멋대로이고 정념이 없이 마구 표현하여 마치 미친 듯 한데, 요마(妖魔)와 무슨 다를 바가 있는가? 남자가 머리를 길고 괴상하게 길러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며, 무슨 예술가, 음악가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두 마성에 이끌린 심리적 변태이다.

도덕의 단속이 있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비로소 불성(佛性)이다. 무엇을 부처수련이라고 하는가? 바로 당신의 마성을 제거하고 모두 불성으로 동화되는 것이다. 내가 방금 전에 말한 것은 대단히 높으며 나아가 매우 구체적이다. 나는 이만큼 이야기하겠다. (장시간 열렬한 박수)